

# 退溪文學의 研究

師範大學 教授 文學博士 徐 首 生

## 1. 序 言

### 2. 朝鮮朝 中期 退溪 前後의 屬壇趨勢

### 3. 退溪의 文學觀과 詩文風

#### (1) 退溪의 文學觀

退溪는 東方理學의 巨擘— 鄭汝昌詩의 調和性— 徐敬德詩의 平澹 深長性— 李彦迪의 不賦詩性— 曹植詩의 豪壯奇偉性— 因文入道の 退溪— 退溪의 石蟹詩— 野塘詩의 思索性— 詠懷詩의 看太虛— 李杜文章— 王趙筆— 白樂天의 名句 掛壁— 孔門四科外 道文一致 文學觀— 曹丕의 典論 論文의 文學獨立性— 文以載道— 金佑畢齋의 道文一致 文學觀— 退溪主唱 文章의 重要性— 退溪의 道文兩立觀

#### (2) 退溪의 詩·文學風

陶·杜·歐·蘇·朱의 崇尚— 陶詩와 退溪— 退溪의 吟詩— 枯淡·簡淡·峭巖·勁健·典實한 退溪詩— 朱子의 九曲權歌頌과 遊山書事— 退溪晩年 朱子의 學과 詩文心醉— 退溪의 陶·杜·韓柳·白·劉·歐·蘇·邵詩 次韻·用韻·和韻— 退溪 漢詩의 代表作— 壺谷詩話의 退溪詩評— 小華詩評의 退溪詩評— 月汀漫錄의 退溪詩評— 芝峰類說의 退溪詩評— 國朝詩刪의 退溪詩評— 星湖僊說의 退溪詩評— 金誠一의 野鳴詩評— 金富倫의 野塘詩評— 退溪言行錄의 地上草亭詩評— 星湖僊說의 退溪詩評再論— 權松溪의 남작글씨 다락風月 評— 申紫霞의 東人論詩絶句의 退溪詩評— 曹深齋의 退溪詩評— 張經世의 江湖戀君歌跋의 退溪 陶山十二曲 評— 陶山十二曲跋에 나타난 溫敦敦厚性의 詩觀— 澤堂集에 나타난 溫敦詩觀— 退溪言行錄에 나타난 戲發淫醜之語 排斥— 魚雁圖詩集跋에 나타난 詩와 人格— Buffon의 「文体는 사람이다」— 文体明辨의 文章은 사람— 滄浪詩話의 人格의 必要性— 退溪의 詩觀은 詩는 사람이다— 退溪의 養靜·守靜의 重要性— 退溪의 學杜— 退溪의 東坡尊重— 松溪漫錄의 東坡熱— 退溪 梅花詩의 代表作— 退溪의 論理整然한 文章力— 退溪의 代表的 書牘— 退溪文章의 織布成匹性

### 4. 陶山十二曲의 純靜·溫敦·自然性

- (1) 머리말
- (2) 創作年代
- (3) 創作動機
- (4) 板本과 書風
- (5) 純靜性
- (6) 自然文學性
- (7) 溫敦 深思性
- (8) 主觀性과 音樂性
- (9) 詩觀과 詩情
- (10) 陶山十二曲系의 模倣作品
- (11) 小結言

## 5. 結 言

## 1. 序 言

아득한 옛날 冥冥의 日月을 함께 하고, 草萊의 乾坤을 開闢한 檀君治國 以來 千年의 存萬居諸를 지날 무렵에 우리의 權城湖山에 中國의 漢文이 傳來되어 우리들의 思想感情은 그 漢文에 의하여 表現되었다. 文字 없던 이 江山에 高度한 漢文字가 傳來됨으로써 우리의 人文史는 더욱 活氣를 띠기 시작했고, 人智의 발달과 더불어 漢文의 발달은 度를 거듭하여 進步하더니 마침내 三國을 거쳐 新羅 統三期에 이르러 太平頌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漢文보다 漢文學이 大備되고, 統一新羅의 文化는 찬란한 꽃을 피워 남다른 멋의 文化를 創造하여 海內에 울렸다. 그러나 羅末에 이르러 東方 漢文學의 達磨初祖라 할 수 있는 崔孤雲이 太白처럼 나타나 漢文學은 名實共히 新紀元을 이룩하더니 이어 鵝嶺으로 들어서자 漢詩文章은 中原에 匹敵하였다.

「麗朝의 文學은 白雲·益齋가 代表하니 溫潤하고 含蓄이 적으며, 朝鮮朝의 文學은 月象·滌·澤과 四家·紫霞의 詩文이 傑出이라고 稱하나, 生硬하고 乾燥하여 前者는 春水가 四溟에 가득 차 것 같으며, 後者는 夏雲에 奇峰이 많은 셈이다」라고 評論한 天台山人의 表現은 꼭 재미있는 말이지만, 四作의 評論 또한 玩賞할만 하다.

四作의 東人詩話에

「高麗詩文 詞麗氣富而体格生疎, 近代著述辭纖氣弱而義理精到」

라고 하였으니, 詞麗氣富는 麗朝詩文의 長點이요, 義理精到는 朝鮮朝詩文의 長點이지만 体格生疎는 前朝詩文의 短點이요, 辭纖氣弱은 我朝詩文의 短點이라고 喝破하였다. 이렇게 一長一短이 있긴 하나, 前朝는 散文보다 律文이 能하고, 文詞가 雅麗하고 逸氣가 富贖 凌人하여 我朝보다 勝詩하였다.

그러나 麗末에 이르러 中國의 새 体系的 學問인 宋의 道學이 傳來된 爾來 宋詩文의 效顰이 旺盛해지고, 이 理學을 研究하는 학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鵝嶺의 運氣는 가고, 三角에 新運氣가 열렸다. 여기 新興 漢陽朝의 崇儒斥佛 旗幟아래 往年의 儒佛混合儒學이 淨化되어 갈 무렵, 理學의 研究熱은 점점 高潮되어 가더니 漢陽朝 中期에 이르자 東方의 朱夫子로 推崇되던 退溪가 꼭 부처처럼 나타나 東方 理學을 大成하여 後世에 길이 빛났다.

退溪는 栗谷과 더불어 朝鮮朝 儒學界를 代表한 最高峰으로 그 品格과 學問이 後人에게 끼친 功績과 影響이 絶大하였다. 退溪는 栗谷보다 35年長의 先進 儒宗으로 燕山君 7年(A. D. 1501) 12月 25일에 출생하여 宣祖 3年(A. D. 1570) 12月 8일에 享年 70으로 天年을 마쳤다.

退溪는 일찍이 文科에 及第하여 宦路에 나아가긴 했으나 항상 田園에 들어가 閑靜生活 속에서 學問하기를 企願하였다. 자신의 病弱과 擾亂한 政界의 아귀다툼에서 벗어나려 한

原因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田園憧憬과 學問成就가 그의 本心이었다. 그는 禮曹判書·右贊成·兩館大提學 등을 지내긴 하였으나, 그것도 命을 어기지 못하여 不得已 除授하였을 뿐, 暫間 暫間 所任을 맡았다가 固辭하고 歸鄉하여 閑靜界에서 學問研究에 보람을 느꼈다.

그는 東方 理學을 大成한 儒宗으로 誠을 기본으로 平生 敬을 실천하고 면밀 沈着하게 條目條目を 따져 깊이 研鑽 洞察함을 학문의 基本姿勢로 삼았다. 退溪는 天稟이 明肅溫謙하고, 端祥和粹하였다. 그 高潔至純 人格을 갖고 理學에 潛心하여 學立德行이 흠사 鳳凰이 千仞斷崖를 翱翔하는 氣像이었고, 그 學問과 品行이 後世에 이에 化하는 이가 續出하였으니 泰山北斗와 같은 東方大賢의 眞面目이 如實히 드러났다. 明宗實錄에 말하기를 「渟性明肅溫謙 端祥和粹 潛心道學 體驗研究 多所自得 元養功深 無復圭角 辭受取取 心揆諸義 一毫不拘 未嘗言人過 亦不經許人也 其縷析精微 闡明義理之功 東方先儒之所未有也 學者仰之如泰山北斗 其飄然脫洒 難進易退之節 眞有鳳凰 千仞仞氣像 一鄉士大夫咸觀而化 皆恥作非義 不屑貨利 其德之入人者深矣(明宗實錄 21年 2月 15日條)

이라고 한 記錄을 읽어 보면, 退溪의 모습이 歷然하다.

그는 因文入道한 大學者로 中年以前엔 文章學에 힘을 기울였으나, 中年以後로는 道學을 專攻하여 程朱의 學으로써 知行의 準則을 삼아 人生을 살아갔다. 그러므로 退溪의 根本思想과 그 學說은 程朱學의 範疇를 뛰어넘지 못했다 할지언정 그의 哲學的 思索에 있어서는 朱子의 理氣二元論的 思想을 잇되, 이를 한층 더 철저하게 體系化하고 그 奧義를 剔抉하여 退溪學을 이룩하였다. 곧 朱子의 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體系化하고 論理化 하되 理氣互發說을 思想의 核心으로 잡았다. 理가 發하여 氣가 이에 따르는 것 所謂 理發氣隨之가 四端이요, 氣가 發하여 理가 이에 타는 것 所謂 氣發理乘之가 七情이라고 주장하였다. 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奇高峯과의 八年間의 論爭은 四七分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고, 그의 學說은 뒤에 그의 二元論을 反駁하고 나선 栗谷의 畿湖學派에 대해서 嶺南學派를 이루어 韓國理學史上에 있어서 큰 問題點이 되었다.

그러나, 理氣의 宇宙間에 있어서의 作用에 대하여는 朱子는 말하되, 氣는 능히 凝結하고 造作하나 理는 情意와 造作이 없다 하여 理 스스로 認定치 아니하였지만은 退溪는 이를 認定하였다. 곧 退溪는 理와 氣가 한가지 實在의 作用이 있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理를 순연히 抽象的, 概念的, 形式的, 無爲의인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다. 退溪의 말은 理가 스스로 動靜하고 스스로 作用 流行한다는 말이니 그는 오히려 자기가 前에 단지 本體의 無爲함을 보고, 그 妙用의 顯行하는 것을 아지 못해서 거의 理를 死物로 認定할뻔 하였다고 「退溪答奇明彥書」에 말하고 있으니 朱子와는 다른 退溪學說의 特性이 드러났다.

그런데 退溪는 뒤에 「聖學十圖」를 宣祖께 製進할 때는 十圖의 一인 「心統性情圖」에 四

端은 「理發而氣隨之」七情은 「氣發而理乘之」란 글귀를 붙여 前日의 「四端은 理之發」이요, 「七情은 氣之發」이라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였지마는 그의 지론인 「理氣互發」「四七對立」의 主旨는 歷然不變하였다

退溪의 精詳愼密하고 溫恭健實한 性格이 그 학문에 더욱 발휘되어 形而上學的 哲學을 談論하면서도 形而下學的 訓詁考證의 學을 重視하였으니 노상 門人으로부터 經傳의 質疑 訓釋 參考考訂 板本校讎 등을 日課로 하여 一字·一句라도 泛然히 하지 아니하였다. 朱子以後에 하고 많은 朱子學徒가 中國에 내쳤지마는 그들은 대개 尊德性(實踐躬行) 方面에 偏重하며 深遠한 학문을 論하는 論學文字는 比較的 적었다. 退溪도 尊德性을 소홀하지는 않았지마는 그것보다 道問學(博學)을 爲主로 했던 것 같고, 그는 노상 高遠한 理學을 中心으로 하여 積蓄한 博學으로 學者를 대하면 深遠한 哲理를 提示하기를 좋아하곤 그 敎道方法은 歸納의 工夫보다도 演繹的 工夫를 주로 하였다. 비록 初學者라도 대면 心經과 같은 高遠한 哲理를 課하기 常例로 하였으니 그의 演繹工夫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의 言行錄에 「初學用功之地 莫切於心經」이라 하고 또 「下學上達 固是常序 然學者習久無得 則易中廢 不如指示本源地頭」라고 한 말을 想起해 보면, 그 學風의 모습을 推察할 수 있다.

그가 明宗末 宣祖初에 禮曹判書를 拜하고, 翌元年 戊辰(A.D. 1568) 68歲 때, 屢召로 나아가 大提學 判中樞府事兼 知經筵을 拜하고, 지 유명한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를 製進하니 退溪晩年에 가장 意味深長한 著作物이었다. 더우기 退溪가 闕下로 물러날 때, (宣祖 2年 3月, 69歲) 宣祖에게 올린 累累長言 가운데

「今世는 平治라 할 수 없되, 南北에 亂이 있고, 生民이 困悴하고 府庫가 空虛하여 장차 나라가 나라 아닌 지경에 이를지 모르니 갑자기 突變이 있으면, 土崩瓦解될 것이오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宣祖修正實錄)

고 주장한 말은 위의 名著 以上으로 意味深重한 報國金言이었다. 退溪의 이 말은 栗谷의 養兵十萬論에 앞서기 10餘年前이요 또 壬辰倭亂에 앞서기 20餘年前 일이니 우리들은 退溪의 卓然한 先見之明에 感嘆하지 아니할 수 없다.

實로 退溪는 朱子의 理氣二元論을 계승하되 그의 學을 一層 더 深化하고, 「理氣互發, 四七對立」의 主旨를 강력히 내세우고, 朱子와는 달리 理는 스스로 靜動하고 流行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學風 또한 그의 性品처럼 溫敦柔厚하고 下學上達의 歸納的 方法論을 取하지 않고 오히려 上達下學의 演繹的 方法論을 取하였으며 形而上學的 哲理를 窮盡하면서도 形而下學的 訓詁考證의 學을 소홀히 하지 않되, 一字·一句라도 泛然히 하지 않았다 溫恭無比하고 健實有備한 退溪學風이 人間을 넘어섰다.

이렇게 退溪는 東方 性理學의 太白일 뿐 아니라, 詩와 文章 그리고 우리의 歌曲에도 一家를 이룬 大人이었고, 筆法 또한 古道學者群中 一角을 創立하였다

茹峰老人 盧守愼은 退溪를 조상하는 祭文에서 至大·至正·至精·至高한 道·學·辭·行을 높이 평가하면서 慟哭하였으며,

「嗚呼 先生而至斯耶 至大之道 至正之學 至精之辭 至高之行 既不復得而見之 已而已而 慟矣慟矣 成就 君德之器 誘掖人材之才 黜伯行王之術 雖進易退之節 終豈復得而聞諸 已而已而 慟矣慟矣」(增補 退溪全書 四 陶山 輓祭錄 祭文 p. 301)

高峯 俞大升은 그의 祭文에서 들보가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짐에 骨驚魂飛하면서 통곡하였다.

「嗚呼痛哉 梁木之壞而泰山之頽乎 吾何以爲懷也 上悼斯文之墜 地下憐晚學之失依 曷爲不使我骨驚而魂飛也」(同上)

東方 大賢 栗谷은 退溪를 뜻하는 輓詞에서 良玉精金인양 程朱의 學을 大成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良玉精金稟氣純 眞源分派自關關  
 民希上下同流澤 跡作山林獨善身  
 虎逝龍亡人事變 瀾回路闕簡編新  
 南天渺渺幽明隔 淚盡騰摧西海濱 (東詩精選 卷下 七律 19張)

休庵 白仁傑은 그의 輓詞에서 趙靜庵이 간 뒤 退溪 있더니 泰山이 一朝에 무너졌다고 통곡하였으며,

靜庵之後寂無人 賴有先生獨會神  
 豈意太山崩一夕 群蒙從此啓無因 (增補 退溪全書 四 陶山輓祭錄 輓詞)

大提學 思庵 朴淳은 그의 輓詞에서 學의 柱石을 잃은 것을 매우 슬퍼하였다.

神理元冥漠 公胡據至斯  
 中天移柱石 鑿國毀山基  
 墜緒嗟誰繼 遺編尚可窺  
 清涼一痕月 千古見襟期 (同上)

退溪는 平生에 學을 論함을 좋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저술이 많았으며, 精功 詳懇한 博學은 朱晦庵 뒤 오직 一人 뿐이었다고 하겠다. 退栗 兩說을 折衷한 農岩 金昌協은 그의 雜著에서,

「退溪論學文字 不但吾東方所未有 雖在中國 亦不多見 如眞西山 朱子後大儒也 著述非 不富 而論學文字殊不多見 間有一二 亦不似退溪之精功詳懇 其他又可知也」(農岩集 卷32)  
 라고 말하였으니 果然 退溪는 閩中其人 이후에 但只 一人이라 해도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退溪善言學，栗谷善言理」(同上)

라고 한 것도 適中된 論評이라 하겠다 그러나, 退溪言行錄 가운데 내가 接物함에 至誠하되 조금도 속이는 마음이 없고, 淡然히 욕심이 없고 一物도 嬰懷함이 없었다.

「處已接物 一以至誠 無一默鄙許之心 先生淡然無欲 此心 常伸於萬物之上 天地之間 無一物 嬰其懷者」(增補 退溪全書 四言行錄 卷2 類編 p. 30)

退溪의 學은 日用動靜에도 詰黙하고 用功이 平易明白하여 매우 高遠한 일이 없으나, 動容周旋이 禮에 맞아,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妙가 있었으며, 특히 謙虛를 德으로 삼고, 一毫도 滿假의 마음이 없고 道를 보면, 明而望之하였으니 그의 學風이 眞摯하고 健實하여 가히 領得하여 入神之境에 이르렀다. 이렇게 退溪는 朱子後 一人으로 東方 朱夫子로 推崇되었던 大哲人으로 「理氣互發·四七對立」의 學說과 溫柔敦厚하고, 精功 詳密하며, 平易明白하고 演繹的 健實한 學風 속에서 그의 精神의 支柱가 우뚝히 섰지만 그는 또 抒情의 美感이 풍부하여 남다른 詩와 文章 그리고 우리의 時調創作에 特異한 情緒를 吐露하여 當時 文壇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退溪란 詩題에서

身退安愚分 學退憂曩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 (東詩精選 卷上 五絶 23張)

이라고 읊조렸듯이 安分知足하면서 學에 마음 쓰고, 溪上定居하면서 臨流日省하는 退溪의 眞影이 눈에 선하다.

## 2. 朝鮮朝 中期 退溪前後의 騷壇趨勢

朝鮮朝 初期는 崇儒斥佛의 國是아래 새 文運으로 向하던 때에 國初 三大巨擘인 鄭三宰·權陽村·卞春후이 내쳐 新興 三角文壇의 活力素가 되었다가 이어 集賢殿 諸學士와 死六臣 生六臣들의 文筆이 中外를 聳動하고, 더 한층 文壇은 活氣를 띄우더니 世祖·成宗 때에 이르러 不世出의 大文章 徐四佳가兀然히 出하여 朝鮮朝 初期 漢文學을 集大成하였다.

國初는 麗末의 遺風을 받아 모두 東坡를 專主하였으니 四佳以後 詩壇에 卓然한 驍將은 挹翠軒 朴闇과 容齋 李苴이 있었고, 鄭湖陰·盧蘇齋·朴訥齋·成虛白·申駱峯·黃芝川 등이 詩文으로써 宇內에 爭鳴하였다. 挹翠軒과 伯仲할만한 肅宗 때의 才子 金北軒은

「東方之詩 翠軒 爲最 使假之年 勝於東坡…… 東人未有能作 七言長篇 而翠軒獨能焉」

이라고 說破한 것은 知音相鳴의 느낌을 주지 아니하리. 宣祖 때, 人騷人 鄭東溟도 又후은 東國第一이며, 天下奇才라고 극찬하였으니 朝鮮末 詩壇의 鬼才 申紫霞가,

「海東亦有江西派, 老樹 春陰挹翠軒」(東人論詩絕句)

이라고 絶對한 句가 眞正 訶된 말이 아님을 알겠다. 華使 唐臯는 容齋를 吟壇老將이라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靜土居 詩話엔

「東方之詩 以苻爲巨擘」

이라 推賞하였으니 當時 詩壇의 位置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弔義帝文이 「世祖를 項羽에, 端宗을 義帝에 比하였다」고 하여 저 유명한 戊午土禍의 導火線이 되어 禍가 泉壤에 미쳤던 金估畢齋와 그의 門徒가 一角을 이루더니 詩中 四傑이 나타났다. 申紫霞의,

「中宣後進開天是 徐四佳如四傑前」(東人論詩絕句)

이란 말의 適實하였다.

虛白·訥齋가 角奇健하고, 駱峰 淸灑가 抗芝川이라고 하였으니 이들을 一束하여 四傑이라 한다. 장차 일어날 三唐을 두고 보면, 初唐 四傑과도 같은 騷壇의 彗星이었고, 事大文에 心力을 기우린 金蒸齋와 그의 아우 金思齋가 같은 政治的 儒冠文人 등이 文壇에 異彩를 띄웠다.

그러나, 朝鮮朝 初期는 麗代의 不純한 儒佛混合文學을 배격하고, 純儒教漢文學의 樹立을 의쳤다. 鮮初의 儒教單一에의 淨化運動은 崇儒斥佛으로써 國是를 삼았던 朝鮮에 있어 當然하다고 하겠으며, 그렇게 움직이게 한 原動力인 道學은 아직 鮮初에 있어서는 思想으로서 들어왔을 뿐이지 그것이 哲學의 高度하게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생각컨대, 우리의 理學은 麗末의 鄭圃隱·吉治隱에서 金估畢齋·金寒暄堂·趙靜庵으로 계승되었지만 정말 理學이 어떤 水準에 도달한 것은 아마도 趙靜庵 때부터가 아닐까 한다. 燕山君 때, 戊午·甲子의 兩土禍가 일어나 많은 土類가 殺害당하고 國民은 塗炭에 빠져 人倫이 絶滅하게 되자 英特한 中宗이 寶位에 올라 五倫의 道를 尊重하는 理學을 興起시켜 世道를 匡救하려고 하여 經明修行者로 時人에게 推仰되던 趙靜庵이 拔擢되자 學界의 情勢가 크게 變해졌다. 趙靜庵은 中宗의 寵遇를 받아 理學으로써 爲學의 根本으로 삼고 그로써 政治的 指針을 삼아 着着 實施에 올라갔으니 所謂 至治主義 儒學의 領袖는 新進士類中の 巨木 趙靜庵이었다. 이 趙靜庵 一派의 至治主義儒學者들은 옛날의 學問을 躋躅하여 詞章을 重視해 오던 南知足堂一派의 舊學派를 詞章學派라 規定 排擊하였기 때문에 趙靜庵 一派의 過激한 論調에 크게 反對하면서 詞章은 不可蔑視라 외치고 일어섰다. 여기에 이르러 朝鮮朝의 漢文學界는 道學派와 詞章派로 分立되었다.

다시 말하면 朝鮮初期부터 壬亂 사이의 漢文學을 回顧하건대, 이 時代는 儒佛混合文學을 清算한 때요, 道學과 文學이 分立하여 가는 때요, 文學이 獨立하려는 때요, 文學으로서 一大轉換期에 處하였던 때라 하겠다.

그러나 宣祖前後를 통해서 「詩必 唐이요, 文筆西漢」이란 旗幟아래 詩文風 變換期에 突入하여 二才(權石州·李東岳) 三唐(崔孤竹·白玉峯·李藻谷)이 내치 새로운 詩道에 聲名을 올렸을 뿐 아니라, 所謂 文章의 玉石同架로 더욱 文壇은 大盛時를 이룩하였다

이 時代의 所謂 性理學派의 文學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鄭-蠶·趙靜庵·徐花潭·李晦齋·李退溪·曹南冥·盧蘇齋·李栗谷 등이 나타나 性理學 뿐만 아니라, 詩와 文章 또는 時調로써 名聲을 날렸다.

性理學派의 詩歌는 鄭-蠶로부터 시작되니 비록 寥寥한 一絶을 남겼지만 理學派의 냄새를 잘 풍긴 名作이었다.

風蒲獵獵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書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國朝詩刪 七言絶句 遊頭流山到花開縣作 鄭汝昌)

申紫霞는 東人論詩絶句에서 性理學者 李晦齋의 詩를 評하기를

晦齋不屑學操觚      長對青山一句無  
好向先生觀所養      一身還有一唐虞

라고 하였으니 晦齋詩의 뛰어났음을 엿볼 수 있고, 寡作이지만 一首로도 萬首에 當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四次의 士禍, 四色黨爭, 前後七年間의 史上 未曾有의 壬辰倭亂 등이 겹쳐 蒼生이 安堵할 수 없고, 儒家 士大夫가 그 地位에 安居할 수 없었다. 東方 理學의 最高峰인 退溪도 官을 버리고 山林에 雌伏하여 哲學의 思索에 情熱을 쏟고 道德의 趣味에 맛을 붙여 理氣論을 講하고 往復타가 때로 歷史의 事物을 吐露하며, 大自然 속에서 高山流水, 花鳥風月을 吟咏하면서 立學求聖으로 居諸日月을 보내는 風習이 열렸다.

이 隱遁 自然 至樂을 찾는 慣習은 燕山君 4年 爾來 4次의 士禍와 宣祖 己亥朋黨 이후의 慘劇에 基因하였지만 明宗朝의 遺逸에도 成守琛·曹植·成大谷·南彦經 鄭礪·鄭頤兄弟도 있었으나, 宣祖以後엔 盧守愼·李珥·成渾 등과 그 門弟들의 隱逸士가 退溪前後를 통하여 많이 輩出하였다 그 儒家一群과 尤庵 同春一系가 主로 經學 哲學을 研鑽하면서 그 餘力を 빌어 때로는 抒情을 表現한 것도 많으나, 그 中에도 東方理學의 最高峰인 退溪의 詩와 蘇齋의 詩같은 것은 詩 自体로도 價値가 높고 特異한 詩情 속에 一家를 이루었다고 본다.

退溪前後를 통하여 許多한 顯壇의 驍將들이 彬彬輩出되었으나, 唯獨 退溪는 東方 朱夫子로 推仰되던 理學의 最高峰으로서 中外에 그 名聲이 자자하였건만 그는 또 抒情의 詩歌에도 所謂 文學者들의 詩文에 못지 않는 오리온座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의 文學觀과 詩風을 論해 보고자 한다.



### 3. 退溪의 文學觀과 詩文風

#### (1) 退溪의 文學觀

退溪는 東方 性理學의 巨擘일 뿐 아니라, 우리의 歌曲과 漢詩 漢文章에도 一家를 이룬 大家였다. 더욱이 筆法 또한 王右軍體를 익혀 古道學者群中 一角을 이룬 學者요, 詩人이요, 書藝家였다.

朝鮮中期는 所謂 理學派의 詩歌가 脈을 이루어 所謂 文學을 專攻하는 遷客騷人에게 못지 않는 文學이 文壇을 장식하였다.

理學者 鄭汝昌의 七言絶句인 「遊頭流山到花開縣作」은 비록 第一句에 宋의 沙門 參寥의 詩句를 그대로 効用하긴 하였으나, 不自然스러운 點이 없이 首尾가 相應하고, 流暢 清雅한 秀品으로 理學派의 냄새가 풍기는 작품이다.

「風蒲獵獵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國朝詩刪 七言絶句 大東詩選 卷2, p. 61)  
看書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東詩精選 卷上 七絶 p. 28).

이 詩의 첫句는 宋의 僧參寥의 七言絶句 첫句 그대로나, 參寥의 다음 承句가 未熟 不調和하나 鄭汝昌은 남의 글을 引用하였으되 調和를 이루어 詩가 익었다.

風蒲獵獵弄輕柔      欲立蜻蜓不自由  
五月臨平山下路      繡絲無數亂汀州    (星湖僊說類選 卷10 下 論文門 鄭一憲詩)

徐敬德도 理學者로서는 명성이 자자하나, 그의 詩가 水準以上에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의 「山居」란 詩에

花開一草廬      灑灑類僂居  
山簇開軒面      泉絃咽枕虛  
洞幽風淡蕩      境僻樹扶疎  
中有道孟子      清朝好讀書    (花潭集 卷1 山居 6張)

라고 吟咏하였으니 果然 五律의 美感이 言外에 넘치며, 平澹하고 自然的 深長한 抒情이 深淵을 이루는 것과 같다.

또 「有物」七絶을 들어 보면,

有物來來不盡來      來纔盡處又從來  
來來本自來無始      爲問君初何所來    (花潭集 卷一 有物 5張)

句句마다 來字가 重疊되고 來字 一韻으로 치달은 詩句 하나, 意境이 뚜렷하며, 「物質不變論」의 참된 뜻이 어리어 있는 哲理詩라 하겠다.

李彦迪도 理學者로 不賦詩를 못토로 삼았으나, 操觚家라도 가히 미치지 못하는 秀品을 남겨 後世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無爲」와 「觀物」을 들어 보면,

〈無爲〉(其)

萬物變遷無定態      一身閑適自隨時  
 年來漸省經營力      長對青山不賦詩 (晦齋集 卷1 詩律篇 林居15詠中其六)(大東詩選 卷2 p.121)

〈觀物〉(其十二)

空山中夜整衣襟      一點青燈一片心  
 本体已從明處驗      眞源更向靜中尋 (同上)

이처럼 晦齋의 詩가 高古 端雅하면서 論理的 意表가 言外에 서렸다.  
 申紫霞는 東人論詩 絶句에서

晦齋不屑學操觚      長對青山一句無  
 好向先生觀所養      一身還省一唐虞 (警修堂集 第九冊 東人論詩 絶句 35首)

라고 읊으면서 這間的 騷人도 미치지 못하는 詩世界라고 칭송하였다.

曹植 또한 性理學者로서 詩에 있어서도 卓然하였다. 그는 節義를 숭상하고 壁立千仞의 氣像이 있어 隱逸로서 平生을 大自然속에서 道를 닦고 學問을 研磨하고 벼슬을 멀리 하였다. 文章을 이룸엔 奇偉하고 凡常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文章四大家의 한사람인 申象村은

請看千石鍾      非大叩無聲  
 萬古天王峯      天鳴猶不鳴 (象村雜錄·大東詩選 卷2 偶吟 p.126)

이란 五絶을 듣고는 詩韻이 豪壯할 뿐 아니라, 또 自負가 알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李芝峰은 曹南冥의 다음과 같은 五絶 一首를 듣고 論評하기를 言中에 「必有激而發 正中時病」이라 하였으니 適中된 論評가인가 한다.

人之愛正士      愛虎皮相似  
 生前欲殺之      死後方稱美 (芝峰類說 卷13 文章部六 東詩·大東詩選 卷2, p.128)

그러므로 退溪는 答黃仲學中에서 南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論評하였다.

「鷄伏堂 深荷錄 但知其說 曠蕩玄遊 雖於老莊書中 亦所未見 既未嘗學焉 敢議及其人固非尋常 而學又難學也」 (增補 退溪全書一 卷20 書 答黃仲學 p.495)

그의 文學世界가 豪壯獨峭하고 激發不淺하며 曠蕩玄遊한 것은 그의 特性이라 하겠다.

이렇게 退溪를 前後하여 일어난 著名한 理學者의 詩文이 또한 當時 操觚者도 미치지 못하는 哲理的 含蓄性과 溫厚高古性, 壯發玄遊性 등이 한 系譜를 이룩하였으나, 그 中에도 退溪는 「理氣互發 四七對立」의 學과 溫敦潤德의 學德도 特立獨行이거니와 그의 文章 또한

他的 追從을 許하지 못하는 特異한 世界로 달려 一家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退溪는 因文入道의 大學者로 中年以前엔 文章學에 힘을 傾注하였으나, 中年以後로는 程朱를 私淑하여 理學을 專攻하고 程朱로써 知行的 準則을 삼아 드디어 理學을 大成하고 泰山北斗의 東方朱夫子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宣祖 9年(A. D. 1576) 退溪 歿後 7年되던 12월에 上이 諡號를 내리되, 「文純」이라 하였다.

「道德博問曰 文, 中正精純曰 純」(退溪全書 四 卷7 年譜 下 p. 152)

이라 한 것을 보아도 道德 높고 博學 學立하였을 뿐 아니라, 中正精純한 學의 內質이 明映되었으니 그의 詩文章이 또한 高尚한 人格과 더불어 溫敦·清嚴·簡淡·勁健·典實하였나.

그가 15歲 때, 「石蟹」詩를 지어 左右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詩曰

負石穿沙自有家 前行卻走足偏多  
生涯一擲山泉裏 不問江湖水幾何 (退溪全書 三 續集 卷之一 詩 p. 15)

벌써 江湖悅樂의 맛을 풍기고 있었다.

이보다도 앞서 12歲 어린 時節에 叔父 松齋(堧)에게 論語를 배우고 하루는 「理」字의 뜻을 묻되, 松齋가 答하지 못함에 그가 良久 潛思타가

“모든 일의 옳은 것이 「理」가 아니오리까”

라고 하였다 松齋가 크게 기뻐하면서

「네가 벌써 文義를 解得하였구나」

라고 감탄하였다. (退溪全書 四 言行錄 卷一 實記 p. 13, 言行錄 卷6 年譜 上 p. 114)

14歲 때에부터는 讀書하기를 좋아하고, 비록 稠人廣坐에서도 반드시 向壁潛玩하는 것이 그의 眞像이었고, 이때부터 晉의 田園詩人 陶淵明의 詩를 愛誦하고, 그 爲人을 思慕하였으니 山林求學의 癖이 터졌던 것이며, 18歲 때 지은 遊春詠野塘一絶을 보면, 벌써 思索的이면서 識趣가 凡常치 않음을 알 수 있다.

露草夭夭繞冰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同上)

19歲 때는 詠懷詩를 읊었으니 그의 學問의 傾向을 領得할 수 있다.

獨愛林廬萬卷書 一般心事十年餘  
邇來似與源頭會 都把吾心看太虛 (同上)

林廬 萬卷書를 쌓아 두고, 太虛를 찾고자 하는 抒情은 思想的으로 이미 무엇을 느낀 것이다.

弱冠 20에 周易을 읽고 그 뜻을 규명하기 위하여 寢食을 잊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刻苦 勉勵하였으므로 이로부터 羸悴의 疾을 갖게 되었으니 학문에 대한 刻苦精勵가 그 얼마나 놀라웠던가.

「後先生與趙士敬書云 僕早年妄嘗有意 而昧其方 徒以刻苦過甚 得羸悴之疾」(소상 p. 114)

이와 같은 자신의 말을 들어 봐도 早年 刻苦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린 時節 20未滿부터 山林求學의 뜻을 두었다. 일찌기 陶淵明의 詩와 爲人을 思慕한 것을 보아도 그 爲人의 鵬志를 알 수 있다.

그런데, 詩章字畫의 妙는 道學君子인 退溪에게 그 餘事일 것이나, 그는 因文入道한 학자인만큼 이 방면에 宿工이 있어 일찍부터 能聲을 發했음은 前述한 少年時節의 抒情을 읽어보면, 推察할 수 있다. 退溪가 23歲 때, 太學에 始遊하였는데, 때는 己卯士禍를 지나 士習이 浮薄하였으나, 그의 行動舉止가 法度에 맞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嘲笑하였으되 오직 河西 金麟厚 한 사람만이 벗이 되었다. 그가 未久에 故里에 돌아올 제, 學友 河西가 詩로 써 이별을 하니 그 詩句에 曰

有云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 (소상 p. 114)

실로 退溪는 文人書家로서도 훌륭한 一家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는 壁上에다가 白樂天의 詩句를 걸고, 靜動하면서 學과 文學에 힘을 기울였다. 그 名 詩句엔 靜動의 眞像이 서리어 있다.

攄煩莫如靜 攄拙莫如謹 (增補 退溪全書 四言行錄 卷5 雜記 p. 237)

예로부터 性理學者들은 孔孟의 學을 잇고, 高度로 体系化된 程朱의 學을 研鑽하는데 心血을 傾注하였기에 自然 程朱의 文學觀을 영향받지 않을 수 없었다.

論語 先進篇에 孔子가 門人을 개명하되,

「德行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遊 子夏」

라 하였는데, 刑陋의 疏엔 「文學」을 「文章博學」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알고 있는 뜻과는 훨씬 광범하게 해석하여 詩書禮樂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 論語 學而篇에

行有餘力 則以學文

라고 하였는데, 그 文을 馬融은 옛 遺文으로 해석하고, 鄭玄은 道藝라 해석하였지만 이 「行」과 「文」은 先進篇에 말하는 德行과 文學에 해당한다. 그러나, 德行을 먼저하고 文學을 나중하는 것이 孔門의 敎이다. 다만 그 이해를 잘못하고, 德行으로써 道德說로 하고 文學으로써 文筆로 할 때, 여기 道學의 過信과 文藝의 蹂躪이 비롯되고, 文藝는 쉽게 道

德의 桎梏을 벗어날 수 없다. 所謂 道文一致 文學觀이 成立되었다. 그러므로, 漢末까지는 일반적으로 文藝란 것은 道德說의 支配下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곳에 그 存立의 가치가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北方 文學의 最高峰인 詩經과 南方 文學의 最高峰인 楚辭는 純文學域에 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漢代 學者들은 道德의 桎梏에 嵌入코자 하였으며, 文學的 作品은 化하여 道德學의 教科書가 되었다. 그리하여 道文一致의 文學觀은 한층 더 강화되었으나, 魏文帝 曹丕의 「典論 論文」에 이르러선

「蓋文章 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 年壽有時而盡 榮辱止乎其身 二者必至之常期 未若文章之無窮」

을 喝破하고, 文學은 文學대로 卓然히 獨立시켰다. 또 「文以氣爲主」라고 부르짖고, 精神의 活力이 主体라 立論하곤 文의 本을 道德에 건 종래의 道義的 見解를 一掃하였다. 이 「典論論文」이 文學獨立의 初發聲이며, 이때부터 文은 文대로 儒는 儒대로 여기는 風潮가 열려 文學을 儒學에서 分離獨立하는 경향이 더욱 발달해 갔다.

中唐代에 이르러 韓·柳·李 등 大文人이 나타나 道德과 文章과의 本來說을 들어 古文復興을 唱導하였으니, 眞正한 文章이야 말로 經典에 根源해야 함을 力說하였다. 「文起八代之衰 道濟天下之溺」라고 부르짖던 韓退之도 「文以載道」라는 謬說을 제창하여 무릇 道德文章이 아닌 것은 文學이 아니라고 하고, 것처럼 발달한 明清小說, 戲曲도 垂笑해 버리고, 詩歌를 小道라고 하여 돌아보지 않았다. 韓退之의 女婿인 李漢이 韓愈의 文集序에

「文者 貫道之器也 不深於斯道 有至焉者不也」

라고 說破한 것은 가장 韓退之의 文學觀을 잘 포착한 金言이다.

韓·柳가 唱導한 古文復興運動의 文學觀은 漢晉以來 八代間에 차츰 變化해 온 文章을 옛날 孔子 때의 道文一致說에 還元코자 하였다. 이 道文一致의 文藝觀은 宋代에 繼承되어 程朱가 「文以載道」를 motto로 삼았기에 우리 權域도 中國의 이 文學觀을 無批判 無商量으로 襲用하였다. 여기 前近代의 道文一致(藝文一致) 文學觀이 我朝에도 一貫되어 漢學儒生과 道學大家들도 道德과 文章이 一道라 한 所謂 道文一致 思想을 脫皮하지 못하고, 그 桎梏속에 얽매어 道學은 道學이요, 文學은 文學임을 判斷치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韓·柳의 「文以載道」란 道文一致 思想은 現代的으로 해석하면, 그릇된 謬說이다.

文은 道를 載는 그릇이요, 道를 실어야 文이니 道를 떠내선 文이 있을 수 없다는 道文一致 文學觀을 우리는 褻視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道學은 道學이요 文學은 文學이지 어찌 道文이 一致일까보나. 曹丕의 典論論文에서 이미 文學獨立의 卓見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뒤 뛰어난 道學文學家의 出現으로 그 옛날 孔子 時代의 文學觀으로 還元하고, 많은 道學君子들이 이 道文一致 文學觀을 타고 말았다.

우리 權域도 道學君子들이 대개 이와 같은 道文一致 文學觀을 해매고 있었다. 朝鮮初期의 유명한 大學者 金佑畢齋도 尹祥詩集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關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乃文章之根柢也…… 人徒見其今之所謂經術者 不過句讀訓詁之習耳. 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織之巧耳 句讀訓詁 奚以議夫 黼黻經緯之文 雕篆組織 豈能與乎性理道德之學 於是乎 遂岐經術文章爲二致 而疑其不相爲用 嗚乎其見亦淺矣」(佔畢齋文集 卷1 尹先生祥詩集 序 46장)

이 글을 통해 보건데, 文章은 經術에서 내치고, 經術은 곧 文章의 根柢라고 말하고, 經術과 文章이 二致가 아님을 주장한 것은 韓·柳가 진정한 文章이야 말로 經典에서 根源되어야 하며, 「文者是 貫道之器」라고 주장한 道文一致 文學觀이 程朱의 「文以載道」라고 주장한 道文一致 文學觀과 相通하는 見解이다. 中國의 南北朝 때의 批評家 劉彦和가 「文學은 兼有六藝」라고 주장한 말과 通하기 때문에 經術은 곧 六藝요, 六藝는 道學·道德으로 代置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經術과 文學이 二致아니라고 한 것은 곧 經術과 文學이 一致란 말로 해석되니 所謂 道文一致 文學觀의 表象이라 하겠다. 이 道文一致 思想은 朝鮮朝 性理學派의 道學君子들의 傳統的 文學觀이기도 하다.

自古로 道學君子들은 흔히 文藝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고, 經術은 곧 文章의 根柢라고 주장했지마는 退溪는 道學을 專攻하는 儒宗이로되, 文學을 愛護하고 必要視 하였다. 道學도 重要하지만 道學을 表現하는 文章 또 重要하다고 強調하였다.

退溪 言行錄에서 말하되,

「辭는 意를 達할 뿐이긴 하나, 그러나, 學者는 文章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文章을 알지 못하면, 비록 약간의 文力이 있을지언정 능히 자신의 意思를 表現할 수가 없다. 古文眞寶 後集은 逸氣가 있는 文章이니 모름지기 五六百遍 읽은 然後라야 비로소 그 功이 나타난다. 내가 壯年 때, 이 글을 數百遍 읽고는 붓을 잡고 종이에 臨하니 곧 自然히 胸中에서 文章이 흘러 내렸다.」(增補 退溪全書 四 言行錄 卷5 類編 p. 102)

고 하였으니 至當한 말이다. 어떤 學問을 하든지 間에 文章術이 能堪하지 않고는 자신의 意思를 十二分 表現하지 못할 것이다. 「讀書百遍에 意自通」이란 말도 있지만은 古文眞寶 後集과 같은 名文章을 數百번 읽어 자연적으로 流出되는 文章力을 기루어 아름다운 表現能力을 鍊成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들의 思想 感情을 表現하는 文章力의 重要性을 부르짚었다.

또 「先儒가 말하되, 하루에 半은 義理의 書를 읽고, 半은 文章의 書를 읽어라 하니 만약 道를 求하고자 하여 오로지 文章의 書만을 읽으면, 그 用工의 地를 얻기 어렵다.」(同上 p. 24)

고 하였다. 이 말은 道學書와 文學書를 半半으로 공부하되, 文學에 치우치면, 그 本來의 目的하는 道學을 領得키 어렵다고 한 말이겠다. 文學이 重要하긴 하나, 그 文學을 偏重하여 道學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말이겠다. 道學과 文學과의 관계는 恰似 수레의 兩輪과 새의 兩翼과 같다고나 할까. 道學을 연구하면서 文學을 無視하거나 輕視하는 태도를 取하지 않고, 그 性品처럼 온건한 折衷主義를 擇한 것 같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性理學을 연구하는 道文一致 文學觀을 脫皮하지 못하였으나, 退溪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孔門 四科의 文章博學 道文一致 文藝觀, 漢儒가 文學을 道德學의 教科書로 보는 文藝觀, 韓·柳가 文學은 貫道之器라고 주장하는 道文一致 文藝觀, 程朱가 文以載道로 본 道文一致 文藝觀은 孔子以來로 繼繼承承하여 드디어 무릇 道德文學이 아닌 것은 文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것처럼 발달한 明清小說 戲曲도 唾笑해 버리고, 詩歌를 小道라 하여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文學觀이 이 나라 儒學者에게도 傳來되어 오랫동안 그 桎梏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我朝初期의 大儒 金佑舉齋가 主張한 經文一致 文藝觀은 곧 道文一致 文藝觀이요, 이것이 東方 理學者들의 傳統的 文藝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退溪는 大理學者이면서 餘他 理學者처럼 철저한 道文一致 文學觀으로 차닫지는 않았는 것 같다.

道德을 專攻하면서도 文章을 愛護하고 必要視하고 輕視하지 않았다. 분명히 優劣을 가리지 않았으며, 辭는 意를 達할 뿐이긴 하나, 文章을 모르고서야 어찌 道學을 表現할 수 있으랴. 道文兩立이면서 相互 密接한 관계가 있어 새의 兩翼과 같다고 보면 어떨까 한다. 稗官사가 맞는 道文兩立論者라 하겠다. 道學表現形式上으로 본 文章의 重要性이지 內質의 面에서 본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름다운 形式없이는 아름다운 內容도 없다. 그 反對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 프로벨이 아니라도 表現形式面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道學內容일지언정 아름다운 文章表現能力없이는 그 思想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中年以前엔 文學에 힘쓰다가 中年以後엔 理學에 心血을 傾注하여 大成한 所謂 「因文入道」한 退溪인지라, 餘他 理學者와는 달리 道學도 道學이거나 文學의 眞諦를 領得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退溪는 단순한 道文一致 文學論者가 아니라, 道文兩立 道文折衷主義 文學觀을 내세운 학자요, 文學者라 하겠다.

## (2) 退溪의 詩文風

退溪는 詩와 文中에서도 더욱 文章에 能堪하였으나, 詩에 있어서도 俗儒가 미치지 못할 높은 境地에 이르렀다.

그는 陶淵明·杜少陵·歐陽修·蘇東坡·朱晦庵의 詩를 숭상하여 얻은 詩風이 果然 退

溪다운 高尚한 品格이 있어 水準以上에서 어떤 黜坐를 차지하고 있었다. 退溪는 14세란 어린 少年 時節에 벌써 책읽기를 좋아하고, 비록 稠人廣坐일지나, 반드시 壁을 향하여 潛行 하였으며, 陶淵明의 詩를 사랑하고, 그 爲人을 思慕하였다. (退溪全書 四言行錄 卷6 年譜上 p. 114) 어릴 때부터 벌써 陶淵明의 詩와 爲人을 좋아하였으니 退溪에게 淵明의 文學世界와 人品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田園詩人 陶淵明! 五斗米를 爲하여 허리를 굽히기를 不屑한 陶淵澤 그는 晉代 逸民의 巨擘이요, 古今騷人中の 泰斗다. 晉文學를 爲하여는 悼尾一振한 大人이요, 宋文學를 爲하여는 前驅先唱을 한 太白이었다. 그러나, 그는 憤世嫉俗하는 不平家가 아니라, 田園을 즐기고, 自然을 사랑하는 樂天家가 아니라, 矯激凌厲로써 禮法을 度外視하는 方外의 선비가 아니라, 冲淡清遠으로써 隴畝 사이에서 琴書를 즐기고, 風塵 속에서 詩酒를 벗삼으며, 人間을 살아가는 隱逸韻士 아니라, 그는 天性이 曠懷하여 榮利를 그리워하지 않고, 功名을 求하지 않는다고 했지마는 青年時代의 그는 歸田以後의 그와는 같지 않았다. 그의 擬古詩에서 「少年壯且厲 撫劍獨行遊」라고 한 抒情을 살펴 보건대, 當年の 그는 意氣軒昂하여 拔山蓋世의 氣概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靑雲의 大志를 이루는 것이 本心이 아니라, 北窓 아래에 高臥하여 羲皇잡 꿈꾸는 것이 그 本願이었다. 一時 出仕함으로써 그의 傲骨이 어버이 때문에 屈하긴 하였으나, 義熙元년에 怏然히 印綬를 풀고 歸去來辭를 高唱하면서 그리던 田園에 돌아온 爾來, 安心立命 遺世獨立하여 田園을 사랑하면서 詩酒를 벗삼고 軒冕을 바라지 않고, 生前의 이름도 身後의 기림도 돌아보지 않던 陶柴桑, 그의 本願은 여기에 나타났고, 그의 眞價는 여기에 있다.

그의 樂作 歸去來辭는 그의 自画像이요, 歸園田居는 그의 田居寫眞이요, 飲酒二十首中の 「結廬在人境」 詩는 또한 그의 心畫라 할 수 있어라. 王安石은 「由詩人以來無此句」라고 극찬하였다. 그의 詩는 平淡하면서 深趣있고, 自然的이면서 逸氣있을 뿐, 一點의 愧詞도 一毫의 浮辭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의 志와 行을 吟詠하였다.

梁의 昭明太子는 그의 글을 사랑하고 手不釋卷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德을 想望하고 그와 매를 같이 못하였음을 恨하였다. 唐의 韋應物·柳宗元·白居易·宋의 王安石·蘇軾·蘇轍 등이 모두 그의 詩를 즐기고, 그의 詩風에 감겨, 各得其性하였다. 그는 능히 古今 隱逸詩宗으로써 後世에 영향이 絶大하였다. 淵明以前에 淵明없고, 淵明以後에 淵明없다고 한 말이 더욱 切實하며, 그는 心外에 求仙한 것이 아니라, 心中求仙한 田園詩人의 면류관이었다.

우리나라엔 麗朝에 瓦鮮부척 陶淵明을 그리워했고, 漢陽朝엔 더욱 淵明의 詩와 爲人을 사모하였으나, 退溪前後에 와서 더욱 그러하였다. 辭官 歸鄉하는 官僚나, 不遇落塊한 隱逸이나, 天出愛山하는 士林이나, 出家修道하는 沙門 등이 그를 사모하고 그의 글을 즐겼다. 竹所 金光煜이 그러했고, 壘岩 李賢輔가 그러했다. 東方의 儒宗 退溪도 그러했다. 退



溪는襟度가飄灑하고韻도가淸越하며,自然을 사랑하고田園을 즐겼으므로 觸物感時하여抒情을昇化시킨詩만으로卷을 이루었다. 그가安食樂道로人生을達觀하고俗塵을超越하여田園의眞을 얻고,「於讀於耕一廢難」이라 읊조리던田園生活文學者로志向한點에 있어서는淵明과 髣髴하였으나, 그러나退溪는淵明과 같이偏傾된老莊의縱酒放逸한詩人도 아니요,無絃琴을弄한다는 그러한虛妙를 즐기던詩人도勿論 아니었다. 말하자면,退溪는溫恭敦雅하고深思罔滿의君子的詩人格을 갖추었으니, 이른바모라리스의詩人이라 볼 수 있다. 그의詩와文이溫厚端雅罔滿簡淡의眞味が 흘러 넘쳤다 陶山十二曲이나曹南冥에게 준書는이런類의代表作이라 하겠다.

그의和陶集移居韻 2首와和陶集飲酒 20首를 읽어보면,田園眞樂 속의簡淡淸嚴한詩情을 엿볼 수 있다.

淵明의「心畵」라 할 수 있는飲酒二十首에和하여愛靜不愛喧하고,洛闕을崇仰하고萬物이各自得함을凝視하는 가운데,放逸하지 않고,簡淡淸嚴한抒情에眞君子像이 서렸다和陶集飲酒詩 4首만摘記하여, 감상해 보면, 그의詩情을 알 수 있다.

白雲在空谷	無心天上飛
偶然隨風起	何更有戀悲
遊宦 <sup>1</sup> 恒泛泛	含雨亦依依
苟不濡嘉澤	曷若適其歸
我思古賢達	末路何多衰
既雨不能罷	亦與天道違(退溪全書 - 卷1 詩和陶集 飲酒 20首 其四)

我本山野質	愛靜不愛喧
愛喧固不可	愛靜亦一偏
君看大道人	朝市等雲山
義安即蹈之	可往亦可還
但恐易磷緇	寧敦靜修言(全上 其五)

曠日出東北	岩居霧露開
川原曠延囑	爽朗幽人懷
萬物各自得	玄化妙無乖
飛飛雙燕子	長夏自來棲
有口不啄粟	卒瘞銜其泥
巢成養雛去	物性天所諧
無機似獨智	用巧還群迷
晴簷語呢喃	主人夢初回 (全上 其九)

舜文久徂世	朝陽鳳不至
祥麟又已遠	叔季如昏醉
仰止洛與閩	群賢起鱗次
吾生晚且僻	獨味修良貴
朝聞夕死可	此言誠有味 (同上 其 十四)

그는 知命 2월에 退溪의 西쪽에卜居하면서 獨酌一杯酒하고, 한가로이 陶遠의 詩를 읊었다. 그리고, 林澗中에 거닐면서 曠然히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溪聲은 밤낮으로 흐르고 山色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붉는데 무엇으로써 내맘을 위로하리오. 聖言만이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라고 退溪는 부르짖었다. 簡淡淡泊 清厲端雅한 詩情을 吐露하는 가운데에서도 聖賢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求聖君子로 向한 철저한 모라리스 詩人이었다. 그는 또 天然 飄逸하고 天衣無縫의인 詩仙보다도 工整嚴肅하고 沈痛典雅한 詩聖 杜少陵의 抒情에 마음 쏟았으며, 富瞻逸氣로써 抒情을 깨들은 蘇東坡의 詩情에 潛入하기도 하고, 晚年엔 淡泊清靜으로써 道學君子風에다 光風霽月의 清嚴 속에 사는 朱晦庵을 崇尚하여 그의 詩文風에 人間抒情을 吐露하였다. (退溪全書 一 卷三 詩 求志 p. 108)

그는「求志」(退溪全書 一 卷三 詩 求志 p. 108)란 詩에서 「富貴空雲一點浮」라 부르면서 오로지 聖賢의 뜻을 渴求하였다. 그의 吟詩(同上 p. 108)에선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
風雲動處有神助	董血消時絕俗音
栗里賦成眞樂志	草堂改罷自長吟
緣他未著明明眼	不是吾絨耿耿以 (同上 p. 108)

라고 하였으니 그는 詩 自体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르치게 하며, 興이 일어나고 情緒가 움직이면 벌써 禁하기 어렵다.

詩自体에 있어서의 主觀的 情緒의 自發的 表現을 믿고 있다. 「詩는 高尚한 情書의 高尚한 領域을 想像에 의하여 音樂의 形式으로 暗示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러스킨이 아니라도 美的 韻律의 創造인 詩 自体는 平靜한 속에서 喚起된 強力한 感情의 自發的 氾濫이기에 그 自体가 사람을 그르치는 하는 것은 아니다.

退溪는 사람이 스스로 詩를 그르치지 詩自体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詩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있으니 退溪의 根本 詩觀이 드러나고 있다.

退溪 言行錄에 보면,

「退溪는 詩를 짓되, 清嚴簡淡하게 표현하니 그 爲人에 닮았다. 젊었을 때는 杜少陵의 詩를 배우고, 晚年엔 朱晦庵의 詩를 기뻐하였으니 그 調格이 一手에서 내친 바와 같았

다. 筆法 또한 端重하였으므로 사람들이 爭求하였으나, 굳이 辭讓하지 않았다.」(退溪全書四卷五言行錄類編 p. 103)

그는 平生에 詩짓기를 좋아하고, 用功이 尤甚하였는데, 그의 詩가 勁健典實하고, 華彩를 품지 않았다. 처음 읽어 보면, 無味한 것 같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난다. 退溪가 일찌기 말하되 「나의 詩는 枯淡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는 詩에 있어서 用力이 頗深한 까닭에 처음 읽어 보면, 비록 冷淡한 것 같으나, 오래 씹어 보면, 意味가 깊다. 退溪는 또 말하기를 「詩는 學者에 있어서는 가장 緊切한 것은 아니지만은 遇景值興할 때는 詩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소상 p. 103)

退溪는 寫字作詩를 한계 朱晦庵의 規範을 遵守하고, 字체가 方正端重하여 비록 偶吟 一絶一句 一字라도 選鍊精思의 苦心을 加하되 가벼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退溪言行錄에 「先生 寫字作詩 亦遵晦庵規範 雖偶書一字 莫不整頓點畫 故 字体方正端重 雖偶吟一絶一句一字 必精思更定 不輕示人」(退溪全書四卷五言行錄類編 p. 103)

이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讀書에 있어서도 亂心으로 하지 않고, 大膽하게 읽되, 비록 一字一畫의 微라도 放過하지 않고, 魚魯 亥之訛라도 꼭 辨別하고 마는 態度를 取하였다. (소상 卷二類編 p. 26)

이와 같이 詩自體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枯淡·簡淡·清嚴·勁健·典實한 詩의 世界를 개척하되, 華彩가 豊富한 詩를 짓지 않았으며, 深長性이 있는 詩風을 가졌다.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깊이 있는 詩界에 逍遙하였다. 더우기 刻苦態度가 杜少陵과 닮아 一絶一句 一字라도 精思의 苦心을 加하여 不輕示人하였으니 그 沈思刻苦 하면서 詩를 修鍊하는 態度를 엿볼 수 있다.

젊었을 때는 陶淵明과 杜少陵의 詩世界에서 나를 찾았고, 中年以後는 蘇東坡의 詩를 즐기기도 하였으나, 晩年엔 朱晦庵의 詩에 心醉하였다. 甚之於 그 格調가 朱晦庵과 恰似하였던 것이다.

退溪가 52歲(明宗 7年 : A. D. 1552) 때 쓴 「書晦庵詩帖後」에서

「내 어려서 失學하고 늙어선 無聞터니 세상에 所用이 없다. 晦庵의 諸書를 읽고 그 무엇인가는 알지 못하나 마음에 기뻐하였다. …… 아! 내 雲谷·廬山·武夷 사이에서 晦庵 先生을 좇지 못하였다. 나의 옛동산에 돌아와 몇몇 同志와 함께 齋居靜裏에서 晦庵의 道를 歌詠하고 天下의 眞樂을 찾고 無限히 즐거워하였다.」(退溪全書二卷四十三跋書晦庵詩帖後 p. 373)

朱晦庵의 學과 詩文에 얼마나 心醉하고 閑居中에서 眞樂을 찾고 즐거워 했는가를 알고

도 남음이 있다. 中年以後 朱子學에 心醉하고 朱子의 未盡한 곳을 밝혀 理學을 大成한 退溪에겐 當然한 所致라 하겠다

三月三日用晦庵先生一字韻 (退溪全書一 卷四 詩 p. 134)

邦子中同泛濯櫻潭用九曲詩韻 (全上 卷三 p. 122)

閑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全上 p. 63~64)

遊山書事 十一首 用雲谷雜詠韻 (退溪全書一 卷二 詩 p. 88)

앞에 든 朱晦庵의 次韻詩를 보아도 얼마나 晦庵을 崇尚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九曲權歌韻이나, 遊山書事는 다 朱晦庵의 九曲權歌와 雲谷雜詠韻을 따서 作詩하였다. 晩年에 退溪는 朱子를 私淑하고, 朱子의 學과 詩文을 酷愛하였으므로 그 調格이 朱子와 恰似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다.

武夷山은 中國의 福建省 崇安縣에 있으며, 山中에 九曲溪가 있어 風景이 絶佳하였다. 南宋 朱子가 일찍이 九曲權歌를 지어 명성이 더 한층 높았다. 康熙字典엔

「武夷在 崇安 有十二峰九曲之勝 相傳靈輿之子 長曰武 次曰夷 隱此得道 故名」

이라 하였으니 武夷 兄弟가 이곳에 숨어 得道하였으므로, 武夷山이라 하였다

事類統編 註에

「武夷山在崇安縣南三十里 道書以此爲第十六洞 化元之天 相傳 昔有神人曰 武夷君者居此 故名. 漢武嘗祀之 九曲溪在武夷山中」

라고 하였다. 故로 九曲溪는 武夷山中의 絶佳之勝地였다. 群書拾唾엔

「武夷山有溪九曲 一曲升眞洞, 二曲玉女峰, 三曲仙棧岩, 四曲金鷄岩, 五曲鐵笛亭, 六曲仙掌峯, 七曲石唐寺, 八曲鼓樓岩, 九曲新村市」

라고 하여 九曲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또 宋史 辛棄疾傳엔

「棄疾常同朱熹 遊武夷九曲山 賦武夷九曲權歌」

라 하였다. 朱子가 辛氏와 함께 武夷九曲에 놀면서 그 絶勝인 九曲을 玩賞하고 저 유명한 武夷九曲權歌를 지어 후세에 명성이 높다. 東方의 大賢 栗谷이 黃海道 高山에다 朱子의 武夷九曲歌를 본받아 高山九曲을 命名하고 유명한 「高山九曲歌」를 지어 우리의 時調界에 빛났다.

東方의 儒宗 退溪는 朱子의 武夷九曲權歌를 次韻하여 漢詩 七絶 十首를 지어 朱子의 詩情에 潛入하였다. 맨 첫 首는 序詩요, 以下 一曲에서 九曲까지의 絶勝을 賦詩하여 그의 서정을 昇化시켰다.

그 중에 몇 首를 들어 보면, 朱子의 手品이 歷然하다.

不是仙山詫異靈 滄洲遊跡想餘清  
故能感激前宵夢 一權麈歌九曲聲

二曲仙娥化碧峯 天姝絕世靚脩容  
不應更覩傾城薦 閭闔雲深一萬重

九曲山開只曠然 人烟墟落俯長川  
勸君莫道斯遊極 妙處猶須別一天(退溪全書一 卷一 詩 p.36~64)

이렇게 晩年엔 朱晦庵의 學과 詩文에 心醉하였으나, 早年부터 晩年기에 이르기 前까지는 陶·杜·韓·柳·白·劉·歐·蘇·邵 등의 詩를 읽고 次韻·用韻하거나 和韻했다는 것은 그의 文集 到處에 보인다.

- |   |                   |
|---|-------------------|
| 五堂春雪用歐公韻  | (退溪全書一 卷一 詩 p.50) |
| 湖堂梅花暮春開用東坡韻   | (全上 p.56~57)      |
| 湖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                                       | (全上 p.57)         |
| 晨至溪庄偶記東坡新城途中詩用其韻二首                                    | (全上 p.60)         |
| 二樂樓次東坡黃樓詩韻  | (全上 p.66)         |
| 十一夜 高鑾岩先生月下飲酒杏花下用東坡韻                                  | (全上 卷二 p.77)      |
| 杏花效王梅溪次韓昌黎韻   | (全上 p.83)         |
| 和樂天眼漸昏昏耳漸聾  | (全上 卷三 p.122)     |
| 春日江村老杜韻二首   | (全上 卷五 詩 p.142)   |
| 郡齋有懷小白之遊追次景遊用昌黎衡岳詩韻                                   | (全上 卷一 p.68)      |
| 拜鑾岩先生令侍兒歌東坡月夜飲杏花下詩次其韻示之 澗亦奉和呈上                        | (全上 p.70)         |
| 遇宋台叟於途期夕回見過既至小酌花下                                     | (全上 卷二 p.83)      |
| 秋懷十一首讀王梅溪和韓詩有感乃用其韻                                    | (全上 卷二 p.91)      |
| 近觀柳子厚 劉夢得以學書相贈答諸詩戲笑中 猶有相勸勉之意令白頭翁不禁操觚弄墨之興 各取其末一絕次韻奉呈彥遇 |                   |
| 和老杜幽人   | (全上 卷二 p.74)      |
| 春日間居次老杜六絕句  | (全上 卷二 p.76)      |
| 清明溪上書堂二首 於溪北次老杜韻                                      | (全上 卷二 p.76)      |
| 移竹次韻康節高竹八首  | (全上三 卷二 p.34)     |

위의 든 詩題를 통해 볼 때, 中國文壇의 名詩人들의 詩의 影響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도 陶·杜·蘇·朱의 詩를 가장 사랑하였다. 初年엔 陶·杜의 詩를 中年엔 蘇詩를 더

욱 사랑하여 人間抒情을 昇化시켰다. 一貫된 理氣哲學觀의 確立 温恭敦厚하 道學君子的 高尚한 人格속에서 作詩하였으므로 前記 詩人들의 詩를 읽어 領得했다 할지언정 그 나름대로의 清嚴·枯淡한 詩世界로 떨어갔다.

이런 詩를 쓰게 된 것은 그의 哲學觀과 人格이 그렇게 물고 갔다고 보겠다.

退溪 漢詩의 代表作이라 할 수 있는 名作을 가려 뽑아 보면 아래와 같다.

義州雜題 十二絕	(退溪全書一 卷一 詩 p. 48)
獨遊孤山至月明潭因並水循山而下晚抵退溪每得勝境即賦一絕凡九首(全上 卷一 詩 p 60)	
戲作七臺三曲詩	(全上 卷一 詩 p. 62)
閑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全上 卷一 詩 p. 63)
和陶集移居二首	(全上 卷一 詩 p. 70)
和陶集飲酒二十首	(全上 卷二 詩 p. 71~73)
侯堂偶興十絕	(全上 卷二 詩 p. 77)
遊山書事十二首	(全上 卷二 詩 p. 88~89)
黃仲學求題畫十幅	(全上 卷二 詩 p. 92~93)
林居十五詠	(全上 卷三 詩 p. 99)
陶山雜 十八絕(七言)	(退溪全書 卷三 詩 p. 100~104)
二十六絕(五言)	(全上 卷三 詩 p. 104~107)
和子中 閑答 二十詠	(全上 卷三 詩 p. 108~110)
岐亭十詠	(全上 卷三 詩 p. 112~113)
韓上舍永叔脩江野十景	(全上 卷三 詩 p. 117)
鄭子中求題并畫八絕	(全上 卷三 詩 p. 119)
星山李子發號休索題由元亮畫十竹	(全上 卷三 詩 p. 121)
題金上舍慎仲畫幅八絕	(全上 卷三 詩 p. 122)
書院十詠	(全上 卷四 詩 p. 127)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	(全上 卷四 詩 p. 129)
遊月瀾庵七絕	(全上 卷四 詩 p. 137)
仙遊洞 八詠	(全上 卷五 詩 p. 155)
金慎仲挹清亭 十二詠	(全上 卷五 詩 p. 158)
次韻集勝亭 十絕	(全上 卷五 詩 p. 160)

이들의 詩는 清嚴·簡淡한 抒情 속에 冥상한 自然을 描寫 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自然의 美感을 主觀의으로 昇化시키려 애썼다. 絶佳勝景의 妙를 그리되, 田園眞樂의 心画를 그 그렸다. 人間 底邊의 問題를 다루지 않고 上流層의 生活周邊과 自然 風景을 노래하고 人

間으로 끌어당기었다.

五七言絶句의 淸語 · 簡淡한 詩속에 退溪는 있다.

- |         |                                     |
|---------|-------------------------------------|
| 身分安愚分   | 學退憂暮境                               |
| 溪上始定居   | 臨流日有省 (退溪全書一 卷一 詩 p. 70)            |
| 掬泉注硯池   | 閑坐寫新詩                               |
| 自適幽居趣   | 何論知不知 (全上 卷二 詩 p. 77)               |
| 何處無雲山   | 清涼更清絶                               |
| 亭中日延望   | 清氣秀人骨 (全上 卷五 詩 p. 158)              |
| 風微成莞笑   | 風緊不平鳴                               |
| 未遇伶偏采   | 空含大樂聲 (全上 卷三 詩 風竹 p. 121)           |
| 枝葉半成枯   | 氣節全不死                               |
| 寄語膏梁兒   | 無輕憔悴士 (全上 卷三 詩 枯竹 p. 121)           |
| 石間井冽寒   | 自在寧心懶                               |
| 幽人爲卜居   | 一瓢眞相得 (全上 卷三 詩 冽井 p. 104)           |
| 大舜親陶樂且安 | 淵明躬稼亦觀顏                             |
| 聖賢心事吾何得 | 白首歸來試考槃 (陶山書堂) (全上 p. 103)          |
| 朝駕烏隄夕汗青 | 古人耕讀尚高情                             |
| 營生奪業今尤怕 | 不獨藏心是利名 (閑居次趙士敬) (東詩精選 卷上 七絶 p. 29) |
| 靜中特敬只端襟 | 若道觀心是兩心                             |
| 欲向延平窮此旨 | 你壺秋月杳無尋 (觀心) (退溪全書一, 卷三 詩 p. 99)    |
| 日暮邊城獨倚闌 | 一聲羌笛 戍樓間                            |
| 憑君欲識中原界 | 笑指長江西岸山 (鶴籟天壘) (全上 卷一 詩 p. 48)      |
| 何年神斧破堅頑 | 壁立千尋跨玉灣                             |
| 不有幽人來作主 | 孤山孤絶更誰攀 (孤山) (全上 卷一 詩 p. 60)        |
| 童龍春遊亦偶然 | 何能感聖極稱賢                             |
| 各知箇裏眞消息 | 蓋世功名一點烟 (舞雩風詠) (全上 卷二 詩 p. 92)      |

- 五言古詩의 名作
  - 晩步 (退溪全書一 卷一 詩 p.57)
  - 和陶集飲酒 二十首 (全上 卷一 詩 p.71)
- 七言古詩의 名作
  - 次季任密陽嶺南樓和朴昌世詩 二十二韻 (全上 卷二 詩 p.78)
  - 送金厚之歸觀 (全上 卷一 詩 p.55~56)
  - 湖堂梅花蓂春始開 (全上 卷一 詩 p.56)
  - 湖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 (全上 卷一 詩 p.57)
  - 用大成早春見梅 (全上 卷五 詩 p.143) (東詩精選 卷上 p.15)
  - 郡齋移竹 (全上 卷一 詩 p.68)
- 五言律의 名作
  - 次黃仲舉訪成大谷 (東詩精選 卷上 五律 p.5)
  - 次友人韻 (大東詩選 卷二 p.132)
  - 溪居雜興 二首 (退溪全書一 卷一 詩 p.70)
  - 石江十詠爲曹上舍雲伯作 (全上 卷一 詩 p.82)
  - 戲作七臺三曲詩 (全上 卷一 詩 p.62)
- 七言律의 名作
  - 過清平山有感 (全上 卷一 詩 p.54)
  - 題林士遂關西行錄後二首 (全上 卷一 詩 p.54~55)
  - 愛日堂 (東詩精選 卷下 七律 p.19)
  - 贈李叔猷 (全上 七律 p.19)
  - 尋改卜書堂地得於陶山之南有感而作 二首 (退溪全書一 卷二 詩 p.93)
  - 養靜 (全上 卷三 詩 p.109)

위의 退溪의 詩作中에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列舉하였으나, 그들 작품을 一讀하면, 그의 學과 人格이 서려 華美 華彩에서 벗어나 溫恭 高尚하게 그려 졌다. 여기 歷代 文人의 退溪詩에 대한 批評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南龍翼은 그의 詩話에서

「本朝之尤者 如鄭三峯道傳之凌厲,……林石川億齡之飛動, 鄭林塘 惟吉之夷曠, 李退溪澗之純靜, 盧蘇齋守愼之眞活」(壺谷詩話)

이라고 하였다. 退溪의 詩는 純靜으로 表現하였으니 그의 哲學世界와 相通하는 말이겠다



② 洪萬宗은 그의 詩評에서

「退溪先生 非徒理學之爲東方所宗 文章亦卓越諸子 次友人詩

“性癖常貧靜 形羸實拍寒 松風關院聽 梅雲擁壚看  
世味衰年別 人生末路難 悟來成一笑 曾是寧槐安”

又關西錄一聯

“絕域病攻天拂亂 荒城雷聞鬼驚忙”

於此可見氣像, 榮州浮石寺即新羅太師義相所躬也 簷下有一樹 莫知其名 居僧相傳以爲太師住杖 始入定之時 植其杖於牆外 遂閉戶坐化後枝忽生柯開花葉甚繁 至今 千有餘年 愈盛 昔夸父擲杖 化成橙林與頗相類 而此樹在於簷宇之下 不借兩露之濡 而能亭亭獨立 榮耀長春 比諸橙林尤異 退溪先生詠曰 “擲玉杰杰倚寺門 僧言託錫化靈根 杖頭自有漕溪水 不借乾坤雨 露恩” (小華詩評 寫本 56張)

이라고 말하였다. 退溪는 東方理學의 宗일 뿐 아니라, 文學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卓越하여 一家를 이루었던 것이다. 또 退溪의 「次友人詩」와 關西錄-聯을 抄出하고, 이 詩에 그 氣像이 드러나고 있다고 칭찬하였으며, 榮州 浮石寺에 千年 묵은 老木이 있는데 義湘의 植杖之樹란 說話를 읽고, 이 古木에 대한 退溪詩를 들었다. 생각건대, 실로 영고롭고 高尚하며, 含蓄性이 있고, 詩想이 높고 言外에 뜻이 스며 있는 名詩며, 오히려 이에 이르러선 流絶流暢하고 靈異의인 詩情이 紙背를 꿰뚫는 것 같다.

③ 尹根壽는 그의 謾錄에서

「退溪 未釋褐時 往還京洛 嘗歷驛江之邊樓亭 以謁慕齋 退溪集中 有自見慕齋 始知正人君子之道 驛州山僧 持詩軸 往謁退溪於嶺南 中有慕齋企齋二老絕句 退溪次韻其絕曰  
“二老仙遊知幾年 僧來見我眼梅天 自嗟曠昔登門客 淚洒遺篇雪滿顛(月汀謾錄)

이라고 하였다. 月汀 尹根壽는 金慕齋와 申企齋의 二老絶句에 次韻한 退溪詩의 연유를 듣고 論評은 하지 않았으나, 그 次韻詩가 傑作이었기에 여기에 収載하였던 것이다. 생각건대, 慕齋·企齋 二老詩보다는 退溪 次韻詩가 우수하였던 것이다. 清嚴 優雅한 詩想과 沈痛하고도 流暢히 靈動하는 逸氣가 盛唐에 直逼하였다.

④ 李晔光은 그의 類說에서

「退溪先生 過清平山詩有曰

“白月滿空餘素抱 晴嵐無迹浮榮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屏玉珩”

蓋高麗時 李資玄隱居 清平三十七年 亦一時高士 而史氏詆以貧耑未免吹毛 退溪此詩 足爲正論矣 (芝峰類說 卷十三 文章部 六東詩)

라고 말하였다. 李資玄은 一時의 高士로써 37年間이나 棄官하고 世間 濁穢之中에서 벗어나 節을 굽히지 않고 千駟萬種이라도 거기에 動하지 않고, 自然속 眞樂을 찾은 隱逸士였다 (退溪全書一 卷1 詩 過淸平山有感并序) 그러나, 東國通鑑에 李資玄이 辭深이나 貶剝하고 貪鄙吝嗇하다고 비난하였으나, 退溪는 李資玄을 이해하고 진실로 알아 주고, 前記 非難史論을 그렇지 않다고 反駁하였다. 李芝峰도 史論에 李資玄이 貪嗇했다고 비난하였으나, 그것은 吹毛를 면치 못했으며, 退溪의 過平山有感詩는 이 방면의 定論이 될 수 있다고 評하였다.

그러므로 退溪의 이 詩는 史論을 反駁하고, 李資玄의 隱逸高士임을 判定하는 데 귀중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清嚴한 詩情과 正當한 史論이 깃들인 名作이다. 이 詩는 七言律이었는데, 여기엔 그 뒷 부분인 後聯과 結聯만을 들었다.

그 七律 全体를 풀어 보면, 高尚하고도 深長性 있는 詩想을 엿볼 수 있다.

峽東江盤淺道傾	忽逢雲外出溪淸
至今人說廬山社	是處君爲谷口耕
白月滿空餘素抱	晴嵐無蹟遺浮榮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屏白疇 (退溪全書一 卷一 詩 p.54)

그리고 또 退溪가 19歲 때 지은 詩를 들고 그의 早年에 생각하는 바가 벌써 이와 같았다고 評하였다.

「退溪先生 19歲 有詩曰

“邇來似與源頭會 都把吾心看太虛”(芝峰類說 卷十三 文章部六 東詩)

退溪集에 보면, 退溪가 19歲 때, 벌써 詠懷詩를 지어 萬卷書中에서 看太虛」코자 하였으니 少年時節에 벌써 哲學에 뜻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엔 轉結만 들고, 早年 詩世界를 評하였으나, 그 七絕 全体를 들어 보면, 凡常치 않고, 意味있는 詩世界를 엿볼 수 있다.

獨愛林廬萬卷書	一般心事十年餘
邇來似與頭會	都把吾心看太虛 (退溪全書四 言行錄 卷六年譜 柳成龍撰)

⑤ 許蛟山은 退溪의 古風詩인

「湖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과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 二首」를 들고, 오직 性理學者일 뿐 아니라 詩에 있어서도 諸公에게 壓倒당한다고 칭찬하였다.

「非惟理學 詩亦壓倒諸公」(國朝詩刪)

⑥ 星湖 李漬은 그의 星湖僞說에서

「朱子方塘詩 但以心之李体言也 該論本末則靜時少而動處多 余敢從而續之曰

“方塘活用自源源 風蕩波驚便易渾 到得靜時塵滓定 原初光景始應存”

此以衆人功夫處言也. 退溪詩云

“露草夭夭繞水涯 方塘活水靜無沙，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鷺蹴波”

者指外物 外物之至 聖人何惡焉 但吾之心體不動耳 以物喻心 惟明鑑止水爲切近 然鑑體不動而無應物之迹 水勢易動而無內明之驗 皆非的證也。外此更無物可況。余嘗有詩云

“池虛不受一塵輕 活水淨泓徹底清 不妨物觸波微動 依舊天雲影自明”

非敢貳於前賢 即述其餘意耳 又齋居感興詩云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不知月者是心 水者是心 又不知和兩物而喻其清明耶 月之照水 影在水中 而光明徹外 或者以此故耶」(星湖僊說 卷十下 論文門 朱子退溪詩)

라고 하였다. 朱子の 方塘詩는 마음의 本体를 詩의 으로 表現하였다. 그러나, 退溪는 18歲 少年時節에 「露草夭夭」란 野塘 七絶 속에 문제를 던졌다. (退溪全書 四 p. 114)

退溪의 野塘詩는 外物이 心體에 파동을 일으킴을 가리켰다. 外物에 이르렀으되, 나의 心體는 움직이지 않을 뿐, 物으로써 마음에 비유하여 明鏡止水에 切近하였다. 그러나, 星湖는 鑑體가 움직이지 않되, 應物이 자취가 없고, 水勢의 쉽게 움직이되, 內明의 驗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的證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詩를 들고, 詩속의 달과 물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 兩物이 和合하여 이룬 것을 淸明心에 비유하였다. 달이 물에 비춤에 그 그림자 물가운데 있으되, 그 光明은 바깥에 徹한다고 보았다. 朱子의 方塘詩는 마음의 本体를 말하였으나, 退溪는 心體는 不動이나, 外物으로써 心體에 파동을 일으킬까 저어렸고, 星湖는 마음을 水月에 비유하고, 달이 照水함에 그림자가 水中에 있으되, 그 光明이 徹外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조금 다른 見解인 것 같다. 그러므로, 退溪의 詩엔 心體本不動이나 觸物恐使動이라 할 수 있고, 星湖의 詩는 心體本不動이나 觸物不微動이라 한다면, 可할까.

⑦ 鶴峯 金誠一은 이 野塘詩에 대하여

「年十六七 已志于學 嘗過溪塘 有詩曰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鷺蹴波”

識者 已知識趣之不凡」(退溪全書 四 言行錄 卷一 實記 金誠一撰 p. 13)

退溪가 少年時節부터 이와 같은 野塘詩를 지었으니 그 趣向이 凡常치 않았다고 말하고, 諸者는 그 識趣를 알리라 하였다.

⑧ 그러나, 金富倫은 野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先生少時 偶遊燕谷 谷有小池 水甚清靜 先生作詩曰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鷺蹴波”

謂天理流行 而恐人欲問之」(全上 類編 學問 p. 169)

金誠一도 이 野塘詩를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이어 朱子觀書有感詩인 所謂 方塘詩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天理流行을 詩의으로 表現하였으니 退溪詩의 哲理性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⑨ 또 退溪言行錄에 보면

「十六七時 已志於學 嘗題池上草亭曰

“露草天天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

其意深長 與觀書有感之詩 同其意云」(全上 言行錄 卷二 類編 學問第一 p. 23)

이 野塘詩를 池上草亭詩라 이르고, 深長性이 있어, 말밖에 숨은 뜻이 있고, 朱子의 觀書有感詩와 그 뜻을 같이 했던 것이다. 앞에 든 金富倫의 말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退溪 6: 箋(明宗 16年 A.D. 1561) 때, 여름에 李德弘이 退溪에게 “野塘詩는 언제 지었습니까?”라고 물으니 退溪가 말하되,

「내가 18歲(中宗13年 A.D. 1518) 때, 지었다. 그 때 짓긴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매우可笑롭다. 그 뒤 다시 一步 나아가긴 하였으나, 오늘의 웃음이 前日과 같다」

라고 매우 겸손한 태도였다. 何如든 이 野塘詩는 朱子의 觀書有感詩의 眞意와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며, 意味深長한 哲理詩라 하겠다. 一般 文人詩와는 달리 他日 理學을 大成한 哲學의 深高性이 이 詩 속에 여러 있는 問題作이었다.

⑩ 또 星湖 李瀾은 말하되,

「退溪喜作詩 今見於集中者 人多歎休戚當時 權松溪應仁 謂“先生不爲詩若草 差強人意” 殊不知其不爲也 非不能也 昔退之銘筆紹述子長傳 司馬長 卿皆似其人 古人作詩文 必心準意想 精神遇會 然後方下筆 如畫其人 則必似其人也 詩文之模寫 亦何異哉 退溪贈林錦湖亭秀二律云

擘闔奇謀漢子房	受年曾當石公方
未翻巢窟龍庭界	先作長城鯨海疆
絕域病攻天拂亂	荒城雷闕鬼驚忙
豪吟白首凌雲氣	妙句何妨鐵石腸
狂胡射月遼東塞	壯士披兵樂浪墟
指顧威靈駭虎豹	風流談笑發詩書
海魴病得龍王藥	江閣吟窺帝子居
唾手功名歸鸞嶺	太半容我老樵漁

句句飛動 俊爽可掬 雖華岳峰尖 寒隴聯野 無心適此 彼錦湖之平生豪吟 未必逮及也 要是非錦湖 退溪亦終不露圭角 松溪何足以知之

其泛漚纒潭詩云

水月蒼蒼夜氣清	風吹 葉派空明
飽擘白酒翻銀酌	桂棹流光掣玉橫
采石顛狂非得意	落星古岸最關情
不知百歲通泉後	更有何人續正聲

即無論義理眞境 不煩纒削 鏗鏘可誦 輕颺度水生瀾 羚羊無痕 削之於藝苑 雖 又何所歎 近世洪司諫汝何 注解退詩 亦深好云 (星湖傳說 卷十下 論文門 退溪詩)

라고 말하였다. 退溪는 詩짓기를 좋아하여 많은 詩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체제가 欠落되 있었다 하였으며, 權松溪는 말하되,

「先生不爲詩若草 差強人意」라고 말하였으나, 星湖는 豪逸한 奇男子인 林錦湖에게 준 七律詩 二首를 듣고, 句句飛動이요, 俊爽可掬이라 극찬하곤 林錦湖의 平生豪吟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論評하였으며, 더우기 退溪는 牛角을 나타내지 않고 高尚한 抒情으로 달린 그의 詩世界를 權松溪가 어찌 아리오 하고 反擊을 加하였다. 또 星湖는 泛漚纒潭詩를 듣고, 義理가 眞境에 이르고 번거롭지 않고, 말소리가 분명하게 鏗然하며, 가벼운 涼風이 물을 스쳐 爛派를 생하게 하고, 羚羊挂角의 詩世界, 곧 모든 것을 초월하여 自由奔放한 詩世界 흔적을 구할 수 없는 詩의 世界라고 극찬하였다.

⑪ 權松溪는 退溪의 弟子였으나, 退溪에게 澹薄風月 濃墨草書에 그쳤지마는 先生의 道徳은 더욱 높았다고 한 것을 볼 때, 俗所謂 「납작글씨·다닥風月」을 뜻하는 것이겠다.

「權松溪應仁 居星州 退溪先生弟子也…… 能文章 七入燕京 三使馬島 嘗言于退溪曰 “先生少止澹薄風月 濃墨草書 則先生之道德益高”

風月者 東俗所謂詩也」(靑莊館全集 卷六十八 寒竹堂涉筆 上 權松溪)

⑫ 朝鮮의 鬼才 申榮禮는 東人論詩絕句에서

夢牽白鶴靑松棲	詩好丹山碧水題
藝寫江光橫匹練	空中明月近堪梯 (警修堂集 第九冊 東人論詩絕句 三十五首)

라고 하였다. 退溪의 名詩는 丹山書堂詩와 練光亭詩라고 보았던 모양이나

起·承句는 退溪 48歲(明宗 3年 : A. D. 1548) 때 丹山書堂詩中的

靑松白鶴雖無分	碧水丹山信有緣
---------	---------

을 말한 것인데, 그 原詩의 七律을 들어 보면,

赴丹山書堂 朴仲初 閱景說 正南景霖正尹士推 戲席留贈

十載沈痾愧素餐	洪恩猶得群符懸
靑松白鶴雖無分	碧水丹山信有緣

北關戀懷分燭夜 東湖離思賞梅天  
 撫摩洞察疲心力 鈴閣飄飄憶故田 (退溪全書一 卷一 詩 p.65)

그러나, 여기 어떤 선비가 있어 늙어서 靑松府使가 되었는데, 自號를 靑松白鶴이라 하였다. “내가 일찌기 靑松관을 願했으나, 丹山골로 오고 말았다.”고 했으니 故鄉의 고을원이 되고자 하였다. 이 詩는 清嚴 簡淡하면서도 雅麗流暢하고 羚羊挂角이 人間을 넘어섰다. 俗塵을 벗어난 雅趣가 서렸다. 그리고, 前述 轉·結句

“暮寫江光橫匹練 空中明月近堪梯”

는 平壤練光亭陪監司尚公震夜講中の

「檻外長江橫似練 空中明明近堪梯」

를 끌어온 詩句였다. 그 原詩를 들어보면

縹緲絨頭翼瓦齊 登臨唯覺遠山低  
 殘雲返照迎初席 玉笛搖琴送早雞  
 檻外長江橫似練 空中明月近堪梯  
 唐公此意眞先得 恰把亭名二字題 (退溪全書一 卷一 詩 p.49)

果然 練光亭의 雅景이 말밖에 번져 나오며, 詩想이 높고, 清絶飛動하고, 羚羊無痕하니 어찌 高雅치 않으리오.

⑬ 近代名家 深齋 曹鏡雙은 許蛟山の 評論을 轉用하여 退溪詩의 高古性을 말하였다.

「退陶文 如許筭說得 自是 其爲李朝詩評曰 “先生詩 不蕪高而自高 乃所以爲高”」 (深齋集 卷三十一 雜論 26張)

⑭ 沙村 張經世는 江湖戀君歌跋에서

「得澗退溪先生陶山十二曲歌 意思眞實 音調清絶 使人踰之 足以興起其善端 蕩滌其邪穢 眞三百篇之遺旨也…… 一番吟諷益覺意味深長 自不知手舞而足蹈也 (沙村集 江湖戀君歌跋)」

陶山十二曲같은 것은 意思眞實하고 音調가 清絶하며, 意味가 深長하여 詠詩三百의 遺旨을 이었다고 極讚하였으니 그의 詩의 高古性을 엿볼 수 있다.

前述한 것을 綜合해 보면, 退溪는 東方의 儒宗으로서 심오한 理氣互發의 哲學觀이 확립된 謹·嚴·端重·溫恭한 道學君子의 人格의 發露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詩世界가 一般文人들과는 다른 特異性을 갖고 있었다.

남다른 純靜이 退溪를 돋우고, 氣像이 높고, 清嚴·簡淡·枯淡하며, 深長성과 含蓄性이 있고, 鏗鏘可誦이요, 輕麗度水生瀾하고 羚羊無痕하며, 俊爽飛動의 妙가 서렸고, 意思가 眞實하며, 音調가 清絶하고 高古性이 있고, 義理眞境에 이르러 읽으면 읽을수록 깊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며, 溫厚한 哲理詩格이 言外에 흐른다. 自然의 美를 誦詠해

도 단순한 客觀的 自然美만이 能事가 아니라, 主觀的 美로 昇化시켰고, 一段 義理의 沈潛 世界로 들어가 抒情의 噴火口로 치달았다. 오히려 華彩를 싫어하고, 褻慢戲狎을 멀리 하고, 所謂 眞實端勁하고 恬澹한 詩情이 영기었다.

退溪가 陶山 六曲跋文에서 自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詩는 溫柔敦厚性을 重觀하였다. 「我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尚 惟近世有李驚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而少溫柔敦厚之實也」(陶山十二曲 板本 5張)(退溪全書五 陶山十二曲 p. 10) (退溪全書 二 卷四十三 陶山十二曲 跋 p. 383)

이렇게 淫哇 褻慢戲狎을 배격하고, 溫敦性이 있는 詩觀을 堅持하였다. 그러므로 金誠이 言行錄에 말하기를 退溪는 文字 言語에도 戲褻之語를 쓰지 않고, 淫醜之語를 입에서 내치지 않았다고 證據 대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의 詩觀을 엿볼 수 있다.

退溪를 爲始한 儒家의 詩學은 卑俗 淫褻을 脫脚하여 純靜·溫敦을 本토로 삼았던 것이다. 李澤堂이 亦是 退溪의 遺訣을 받았음인지 溫敦의 詩觀을 세웠다

「書曰 詩言志 歌永言 記曰 溫柔敦厚 詩之教也 此周詩三百篇宗旨也 韓子曰 詩正而葩 朱子取之 此詩之體格也 反是而志尚僻流蕩 詞意粗俚險怪 皆詩之外道也 今當以三百篇宗旨 熟讀而諷詠之 此詩學之本也」 (澤堂集 卷15, 雜著 示兒代筆)

이렇게 말한 澤堂의 詩教는 退溪의 詩觀과 同軌였다. 退溪言行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으니 道學君子의 風貌가 더 한층 切實하다.

「先生雖文字言語之間 未嘗爲戲褻之語 人有作太眞送臨邛道士 還報唐天子詩欲課之 先生批曰 太眞之事 白樂天始作 備語無跡極 鋪張之大丈夫口中 豈可狀出淫醜之語也」 (退溪全書 四 卷5, 言行錄 雜記p. 237)

그러나, 退溪가 58歲 (明宗 13年 : A. D. 1558) 때, 여름에 魚灌圃詩集跋文에서

「蓋有詩工而 於人無取者 有人優而於詩未至者 若是者 果可以傳世乎 讀其詩而可喜求其人而可親 若是者 果不足以傳世乎……嗚人與詩 不足傳而傳者 適爲其人之病也 可傳而莫之傳者 爲後來士林之責也」 (退溪全書二 卷43, 魚灌圃詩集跋 p. 379)

이렇게 退溪는 사람과 詩는 正比例가 되며, 詩 속에 그 사람의 人格이 서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詩工이나 사람을 取할 수 없고, 人優이나 詩를 取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에 傳하지 못할 것이며, 그 詩工에 사람의 人格이 어리어 思索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傳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그 詩를 세상에 傳할 수 있으되, 傳하지 못하는 것은 士林의 責任으로 看做하였다.

그러므로, 훌륭한 詩工 속에 훌륭한 그 사람의 善人品이 담겨져 있는 詩라야 後世에 傳

할 수 있다는 詩觀이다.

近世 西歐의 文學者 포스넛(Posnett)은 人格으로서 「文學開發의 原理」(The Principle of Literary Growth)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人格이 얼마나 文學에 있어서 重要視 되었는가를 나타낸 말이다.

프랑스의 뷔퐁(Buffon, Georges Louis Leclerc 1707~88)의 유명한 경귀에 「文体는 사람이다」(Le style cest l'homme)라고 한 말은 어떠한 文体도 그 작자 그 사람의 人格의 表明이란 뜻이다. 文學과 作家의 個性 또는 人格과의 關係를 一言으로 表現한 千古의 名言이다. 그러나, 한트(Hunt)는 「文体는 사람이다」란 경귀를 逆으로하여 「사람은 文体다」(The man is the style)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람과 文体와는 不可離의 關係를 말하고 있으니 所謂 文体를 한 작품으로 본다면, 「작품은 사람이요, 사람은 작품이다」란 새 命題로 表現해도 그 眞理는 같다.

생각컨대, 徐師曾의 文体明辨에

「夫文章之見重於世 以其人也 苟非其人 雖美而僞 反以爲病矣」

라고 한 것은 文章은 사람이며, 人格의 表現이니 그 작자 如何에 따라 갖가지로 달라진다. 곧 人格이 높이지 않으면, 어떠한 技巧을 弄하여도 그 文章은 세상에 重要視되지 않는다고 한 말이겠다.

宋의 嚴羽의 「滄浪詩話」에도

「夫學詩者 以識爲主 入門須正 立志須高」

라고 한 것은 詩를 배움엔 먼저 見識과 人格의 必要性을 說破하였다.

그러므로, 前述한 退溪의 主張도

「讀其詩而可喜求其人而可慕 若是者 果不足 以伝世乎」

로 集約되니 굳이 말한다면, 「詩는 사람이요, 사람은 詩다」라고 하겠다. 人格이 높이지 않고는 어떤 詩工도 世上에 重視되지 못한다. 사람과 詩와는 不可離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故로 退溪의 詩觀도 「詩는 사람이요, 사람은 詩다」란 말로 表現할 수 있고, 훌륭한 詩工 속에 高邁한 人格이 어린 詩라로 世上에 重視되고, 後世에 傳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退溪는 「養靜·守靜」을 重視하였다. 靜의 世界에서 修身하고, 立學하면서 나의 性品이 山을 사랑하고 隱居하였다. 論語에 君子는 樂山하고 智者는 樂水라 하였다. 그 靜의 世界에서 人間을 藐視하였다. 眞德秀는 「要人靜定其 自做主宰」라고 하였고, 朱子는 「不必盡日讀書或靜坐存養 皆是用功處」라 하여 靜坐에서 得道理를 주장하였다. 諸淵孔明은 戒子書에서 「靜以修身하고 儉以養德하라」고 말하였고, 劉禹錫은 「衆音徒起滅이요, 心



在 靜中觀이라」이라 부르짖었으며, 또 程顥는 그의 秋日偶成詩에서 「萬物靜觀皆自得이요, 四時佳興與人同이라」 부르짖은 것은 다 靜觀의 重要性을 말하였다.

凡事에 靜을 지키고, 靜을 기쁨으로서 道心에 潛入할 수 있고, 靜의 世界에 들어가 人間의 感情 情緒를 表現하였을 때, 純靜의 文이 되고 詩가 되는 것이다. 退溪는 守靜·養靜을 重視하여 哲學의 世界로 들고, 道를 닦고 德을 기르고, 外境의 自然을 事物을 起伏을, 人情의 流動을 詩의 으로 그려내었다. 栗谷은 人生而靜은 天之性이니 그 靜이 動한 後에 感情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退溪는 養靜을 詩로 表現하였다

休道山林已弃安	心源未了尚多千
眼中灑若常恬養	事過超然莫控博
九歲觀空非面壁	三年服氣異燒丹
聖賢說靜明如日	深戒毫釐錯做看 (退溪全書一卷 1, 詩 養靜 p. 109)

또 守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作詩하였다.

守身貴無撓	養心從未尠
苟非靜為本	動若車無軌
我性愛山隱	塵紛久消歇
一朝來嘗世	已覺神外滑
何況都城中	欲侮競韻越
君為布衣坐	樹蘭寧自我
君門屏好掩	君井泥莫泊
四壁有函書	焚香坐超忽
潛胎判善利	一帥麾千卒
豈有中行士	銜宝甘自別
乘除得與失	不啻霄壤揭
二子勉專精	老我誠亦竭 (全上 卷一 詩 守靜 p. 146)

그러나 范蘭溪가 「百慮煩擾至靜者自若」의 自若에 대하여 靜이 自若하다 함은 깊은 말이 아니라고, 反擊을 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作詩하였다.

止水如心靜為體	動時波潤靜難尋
縱饒不靜非無靜	浪息依然水靜深

體隨用失如無靜	性不終亡本固存
只說靜為元自若	蘭溪無乃太深言 (全上 卷五 詩 p. 162)

退溪는 이와 같은 靜觀을 갖고 事物을 透視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詩觀이 哲學的

이며, 純靜·溫敦·清曠하며, 靜의 詩世界가 退溪를 籠罩했다.

그러므로, 道家的 詩人 李白보다 現實的 寫實的이요, 沈痛·深長·工整스러운 儒家的 詩人 杜甫를 崇尚하고, 그의 詩를 尊重하였다. 當時의 詩人 墨客들이 杜詩를 즐겼다는 것은 李朝가 崇儒斥佞의 國是임을 말할 것도 없지만 그가 忠君愛國의이요, 詩가 儒家的 的이요, 沈痛·深長의 含蓋味가 거기에 어렸기에 理學者들에게 安城맞춤이었다.

退溪集 가운데엔 杜詩에 대한 次韻詩가 많고, 李德弘의 學杜에 대한 기록을 보면, 這間의 信息을 알 수 있다.

辛酉三月晦 先生步出溪南齋 率李福弘 德弘等 往陶山 憩冢頂松下 時山危盛開煙林 明媚 先生詠杜詩

「盤渦鷺浴底心性 獨樹花發自分明

之句 德弘問「此意如何」曰「爲己君子無所爲而然者 暗合於此意思 學者須當體驗正其 諛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若少有一毫爲之之心 則非學也」到玩樂齋 坐節友社梅 下有僧進南冥詩 先生吟詠數遍曰「此老之詩 例甚奇險 此則不然 因次以贈 又作一絕 云.

花發岩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閑到山前看考盤

德弘問 詩有沂上之樂 樂其日用之常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也 先生曰「雖略有此意思 推言之太過高耳」(退溪全書 四言行錄 卷三 樂山水 p. 201)

退溪가 晩年 61歲(明宗 16年 : A. D. 1561) 때, 三月 그믐에 弟子 李德弘 등을 데리고, 陶山에 나아가 하루를 보내면서 뜻있는 杜詩를 읊고, 학문하는 마음을 杜詩에서 援用하였다. 曹南冥에게 준 次韻 七絶은 李德弘이 「詩有沂上之樂 樂其日用之常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라고 극찬하였으나, 退溪는 대개 그 뜻이겠으나, 말이 太過高라고 하였다. 그의 詩가 縹渺하지 않고 現實的이고, 上下가 맞아 各各 그 곳에 맞는 妙가 어런 健實端雅하였던 것이다.

또한 東坡詩는 高麗朝 中期엔 지나치게 崇尚되어 줄지어 登科한 三十名의 名人을 가리켜 「三十東坡出」이라 하였을 정도이니 그 詩의 流行度를 알 수 있으며, 李朝에 들어와도 東坡熱은 계속되긴 하였으나, 李朝中期에 와선 詩必盛唐이요, 文必西漢의 기치아래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退溪는 陶·杜·朱를 매우 숭상하였지만은 詩的 世界에 있어선 富麗逸氣에 넘치고 無卑한 東坡도 崇尚하였다. 그의 文集중에 東坡의 用韻·和韻·次韻詩 등이 곳곳마다 나타났을 뿐 아니라, 權応仁의 松溪漫錄에서 退溪가 東坡詩로 愛誦하고, 東坡詩語로 많이 善用하여 그의 詩思를 吐露하였다고 論證하였다. 退溪 當時는 晩唐을 崇尚

하긴 하였으나, 東坡詩나 그 爲人이 晚唐만 못지 않다고 생각한 退溪인지라, 어찌 東坡를 輕視하였으리. 東坡의 高遠한 妙境의 詩想을 退溪는 사랑하였다.

今世詩學 專尚晚唐 閩東蘇詩 湖陰聞之笑曰「非卑也 不能也」退溪亦曰「蘇詩 果不迷晚唐耶」愚亦以爲「如坡詩……不可謂之卑也 用薄其爲人 則晚唐詩人 賢於蘇者 幾何人耶 唯退溪相公 好說坡詩 常誦「雲散月明誰點綴, 天容海色本澄清」之句 其所著詩 使坡語者多矣」(松溪漫錄下)

그러나, 退溪는 특히 植物中에도 매화를 唯獨 좋아하고 많은 梅花詩를 남겼다. 그 文集中에 梅花詩가 약 百余首에 가깝다. 自古로 東土에선 梅·蘭·菊·竹 四君子를 좋아하고, 그를 詩題로 하여 하고 많은 詩를 짓기도 하고, 그를 函題로 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古今을 通하여 騷人墨客에게 淸賞을 받아 왔으며, 近年 漢土에선 牡丹대신에 梅花를 國花로 삼았으니 牡丹이 가졌던 王座를 梅花가 앉았던 것이다.

그러나, 人情 또한 牡丹의 濃艷보다 梅花의 冷艷이 좋았고, 牡丹의 天香보다 梅花의 暗香이 좋았던 것이다. 麗朝 一流詩人 鄭司諫은 梅花를 善函하였으나, 李朝의 詩人 魚夢龍은 梅花를 읊되, 「細竹淸梅綠水涯 東風春意滿香閣」라고. 이 梅花詩句는 '我朝第一의 稱이 있고, 保閑齋 申叔舟가 函帖에 쓴 名句였다. 風流王子인 匪解堂 四十八詠 中에 梅隱素月을 가장 먼저 읊었다. 國文學의 最高峰인 鄭松江은 思美人曲에서「갖듯 冷淡 한데 暗香은 무스이고, 黃昏의 달이조차 벼말에 비치니 느끼는듯 반기는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梅花 꺾어 내어 임계신 데 보내오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떡다 여기실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으스럼 달빛아래 그윽한 향내 스며들 때, 고요한 그 언저리의 공기 淸淨化 하여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된다.

古今에 梅兄을 읊은 詩人墨客이 하고 하건마는 梅妻鶴子로 自處한 林和靖처럼 氷肌玉骨의 神髓를 味得한 사람은 千古一人 아니랴.

「疎影橫斜水淸淺, 暗香浮動月黃昏」

의 形言外의 眞境을 描写한 詩情은 참으로 逋仙이 아니고는 어이 이를 수 있으랴. 梅花詩 있는 處來 千古의 絶唱이었다.

近世 書藝大家 金秋史의 紅園梅室이 유명하고, 雲現宮에도 梅室이 있었고, 그 밖에도 梅室있는 집이 흔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梅花打鈴에도,

梅花 옛등걸에 봄節이 돌아오니

옛피던 가지마다 피엄죽도 하다마는

春雪이 亂紛紛하니 필지 말지 하여라. (瓶窩歌曲集)

그 抒情의 美感이 사람의 心琴을 울렸건마는 安政英의 梅花詞八絶 또한 竹外 雅趣를 그렸다.

바람이 눈을 몰아 山窓에 부딪치니  
찬 氣運 새어들어 자는 梅花 侵勞하니  
아무리 어루러허인들 봄뜻이야 앗을소나. (金玉叢部)

그러나, 이렇게 梅花를 읊고, 梅花를 그리고, 梅花를 사랑한 百姓인지라, 꽃 사랑의 百花譜가 없을까보나.

牡丹은 花中王이요, 向日花는 忠臣이로다.

蓮花는 君子요, 杏花小人이라.

菊花는 隱逸士요, 梅花는 寒士로다.

朴꽃은 老人이요, 石竹花는 少年이다.

葵花는 巫堂이요, 海棠花는 娼妓로다.

이중에 梨花詩客이요, 紅桃碧桃三色桃는 風流郎인가 하노라. (瓶窩歌曲集·百花譜)

이 노래에서 읊은 것처럼 梅花는 寒士로서 百花魁로서 世間香更無 双品이요, 天下春先得一團이라 읊을만 한 氷姿玉質이 그림다.

退溪 또한 許多한 花草의 植物이 있었건마는 梅竹을 사랑하였다 水肌玉骨의 寒士像이 退溪와 닮았다. 綠竹青松千古節이 아니라도 內虛하면서도 곧은 節 그는 退溪의 節操를 닮았다. 人間속 梅竹 닮이 退溪에게 읊었다. 그 中에도 梅花를 유독 사랑하여 退溪의 特異한 癖끝으로 때때로 梅兄 닮을 그려 抒情을 昇化시켰다.

退溪는 梅·竹·菊·葵花·松·燈花·牡丹·躑躅·芍藥·四季 등 詩를 짓긴 하였으나, 梅花詩가 절대 다수일 뿐 아니라, 退溪의 詩作中엔 梅花詩中에서 代表作을 많이 찾을 수 있으니 그의 梅花愛를 알 수 있다.

晉의 陶淵明이 菊花를 酷愛한 나머지 菊花詩의 千古絶唱을 남겼고, 宋의 周濂溪가 牡丹을 酷愛한 끝에 傑作 愛蓮說을 남겼고, 林和靖이 梅妻鶴子로 自勉다가 梅花詩의 千古絶唱을 남겼고, 李朝의 魚夢龍도 梅花愛 끝에 名作 梅花詩를 남겼고, 現代의 詩人 金永郎은 牡丹을 酷愛다가 저 유명한 「牡丹이 피기까지는」을 남겨 靑史에 빛났다. 그러나, 退溪는 東方의 儒宗으로서 명성이 四海에 떨쳤을 뿐 아니라, 詩文에도 一家를 이루었고, 그 詩中에도 梅花詩는 一般騷人과 性理學者中에서 우뚝하였고, 退溪詩中에도 梅花詩에 代表作이 많다. 退溪歿後 그의 文集에서 梅花詩만을 百餘首 가려 뽑아 刻板하고, 所謂 「梅花詩」란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였으니 가록한 그의 梅花詩의 眞影이여! 여기에 그 代表作을 들어보면, 這間의 信息을 알 수 있다.

用大成早春見梅韻 戊辰(68歲 時作) (七言古風)

再訪陶山梅十絕 (七言絕句) (梅花詩 11張)

陶山月夜咏梅 (七言絕句) (梅花詩 17張)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44歲 時作)(退溪全書 一卷 一詩 p. 56)

여기엔 그 작품 몇首를 들어 보면, 梅花詩의 力量을 엿볼 수 있다.

湖堂梅花暮春始開東坡韻二首

我昔南遊訪梅村	風烟日日銷吟魂
天涯独对歎國艷	駢路折寄悲塵昏
邇來京輦苦相憶	清夢夜夜飛丘園
那知此境是西湖	邂逅相看一嘆温
芳心寂寞殿殘春	玉貌婬約迎初暎
伴鶴高人不出山	辭輦貞姬常掩門
天教晚發压桃杏	妙処不盡騷人言
媚嫵何妨鉄石腸	莫辭病裏携雙樽

藐姑山人臘雪村	鍊形化作寒梅魂
風吹雪洗見本真	玉色天然超世昏
高情不入衆芳騷	千載一笑孤山園
世人不識嘆類沈	今我独得欣逢温
神清骨凜物自悟	至道不暇餐霞暎
昨夜夢見縞衣仙	同跨白鳳飛天門
蟾宮要授玉杵窠	織女前導姮娥言
覺來異香滿懷袖	月下攀条傾一樽 (退溪全書一卷一詩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 p. 56)

溪齋夜起对月咏梅

群玉山頭第一仙	水肌雪色夢娟娟
起來月下相逢處	宛帶仙風一粲然 (梅花詩帖 22張)

에 그의 梅花詩 및 首를 들어 보았으나, 「用大成早春見梅」는 68歲 最晩年作으로 七言風 五十二句의 巨作이다. 그의 梅花詩中 가장 長篇 抒情詩며, 「湖堂梅花詩」는 44歲 中年作으로 七言古風 十六句의 雄作이며, 「再訪陶山梅」나 「陶山月夜詠梅」는 七絶이다.

그의 梅花時 百餘首中 七絶이 為主며, 七言律과 七言古風은 不過 몇 首에 不過하나 그의 作은 幅이 넓고 自由로운 詩形인 古風에 있었다. 前述 古風인 「用大成早春見梅」와 「湖堂花」는 退溪가 비록 理學大家이긴 하나, 清散 端勁한 逸氣가 詩를 꿰뚫고 있는 雄作

이며, 이에 이르러선 諸公의 詩를 仄倒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七言絶句 또한 端雅하여 詩中에 梅花의 眞像이 靈動하고 있는 것 같다.

詩뿐만 아니라, 그는 文章大家였다. 그의 得意處는 詩보다는 오히려 文章에 있었다.

그의 詩나 文이 다 溫敦柔厚의 맛이 흘러 넘쳤다. 退溪의 학문의 蘊蓄과 發揮는 대개 五十年代로부터 六十代에 걸쳐 더욱 增進하였으므로 弁論 著述 編輯 등의 중요한 것은 다 이 사이에서 이룩되었다.

啓蒙伝疑 朱子書節要·宋元明理学通録·心經釈疑 및 奇高峯과의 四端七情分理氣書 등은 그 中에 가장 著名한 것이었다.

退溪가 68歲(宣祖 1年, A. D. 1568) 때, 저 유명한,

戊辰六条疏(退溪全書一 卷六 疏 p. 181~193)

僞聖學十箇割并因(全上 卷七 割 p. 195~211)

를 지어 상감에게 올렸다. 이것은 國恩을 報答하고, 聖學을 啓發키 爲한 것인 즉 退溪 晩年에 가장 意味深重한 大作이요, 溫敦하고 論理整然한 大文字였다.

答奇明彦非四端七情分理氣辨(退溪全書一 卷十六書 p. 407)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 (全上 卷十六書 p. 405)

天命圖說後叙(全上二卷 四十一 雜著 p. 321)

心無体用辨(全上二 卷四十一 雜著 p. 328)

非理氣爲一物弁証(全上 卷四十一 雜著 p. 330)

등은 비록 哲學文章이긴 하나, 論理整然한 名文이며,

書漁父歌後(退溪全書二 卷四十三 跋 p. 373)

陶山十二曲跋(退溪全書二 卷四十三 跋 p. 383)

등은 溫敦한 맛이 흐르는 文章이긴 하나, 그의 晩年 詩文章이 朱子의 格調에 近似하였고, 文章中에도 得意處인 書牘에 이르러서는 溫敦內滿하고, 차분하면서 論理에 核心이 있고, 有核이면서 有情한 글이다.

그 代表的 書牘을 든다면,

与曹健仲(退溪全書一 卷十 書 p. 282)

答曹健仲( " 卷十 書 p. 283)

與林士遂( " 卷十二 書 p. 324)

答李叔獻( " 卷十四 書 p. 369)

答黃仲舉( " 卷十九~二十 書 p. 467~580)

答趙士敬( " 卷二十二 書 p. 548~575)

등이 바로 그것이다. 書牘이 이에 이르러서는 한 文學의 世界로 치달았으며, 그의 書牘은 朱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흡사 朱子의 書簡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退溪는 幼時부터 뜻이 宦路에 있지 않고 自然속에서 道 닦고 학문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一時 仕官하기는 하였으나, 곧 南歸하고 만 것은 世路가 險難하고, 벼슬이 높아가 病弱하여 그 責任을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歸鄉한 것도 한 原因이겠으나, 그것보다 天性이 田園을 동경하고 그 大自然속에서 학문을 이루려 한 것이 主된 原因이었다. 그의 晩年守靜에서,

我性愛山隱 塵紛久消歇 (退溪全書 — 卷五 詩 p. 146)

이란 말을 들어보면, 天性이 田園을 그리워했고, 閒靜 속에서 학문하는 것이 理想이었던 모양이다. 그 真意는 政界와 같은 轉變無常한 動의 世界보다도 漢陽과 같은 화려한 都市生活보다도 閑靜한 田園에 돌아가 自然과 학문을 唯一한 벗을 삼고, 고요히 真理를 探求하는 靜의 世界에 노닐고자 하였다.

退溪가 33歲(癸巳) 때(大科前 1年) 「過吉先生間」란 詩에서,

丈夫貴大節 平生知者難

嗟爾世上人 慎勿愛高官 (退溪全書 — 卷一 詩 p. 47)

이라고 읊기도 하고, 「月影台」에선

老樹奇岩碧海壑 孤雲遊迹總成烟

只今唯有高台月 留得精神向我伝 (退溪全書 — 卷一 詩 p. 47)

이라고 高唱하였으니 그의 真意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더우기 36歲 때, (大科後二年) 지은 「感春」詩에서는,

清晨一無事	披衣坐西軒
家僮掃庭戶	寂寥還掩門
細草生幽砌	佳樹散芳園
杏花雨前稀	桃花夜來繁
紅樓香雪飄	縞李銀海翻
好鳥如自矜	間闕啼朝喧
時光忽不留	幽懷悵難言
三年京洛春	局促駒在轅
条条竟何益	日夕愧國恩
我家清洛上	熙熙樂閑村
隣里事東作	鷄犬護籬垣

圖書靜几席      烟霞映川原  
 溪中魚与鳥      松下鶴与猿  
 柔哉山中人      言婦謀酒尊 (退溪全書 一卷- p. 47)

이렇게 읊었다. 36歲 때, 漢陽에 있으면서 吟詠한 詩이니 그 얼마나 田園樂을 그리워하고, 宦路의 不自由 拘束無味를 느꼈던가. 이로써 退溪는 學者요, 詩文章家였지 政治家는 아니었다. 이런 그가 晩年 60歲 때엔 陶山南嶽에 書堂을 짓고, 陶叟·退陶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더욱 思索에서 道의 大原을 洞察하고 自然에서 感慨를 啓發하여 그 自樂自得의 境地는 朱晦庵의 武夷精舍의 生活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東方의 儒宗이요, 東方의 朱夫子란 稱이 있는 退溪인지라, 晩年엔 朱子의 詩文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으랴. 그러나, 當時 曹南冥은 作文이 甚奇하였는데, 退溪가 그 鷄伏堂等銘은 南華經中에도 일찌기 보지 못한 글이라 한 것은 아마 그의 글을 譏弄한 것이겠다. 曹南冥이 말하기를,

「나의 文章은 비단을 짜되, 아직匹을 이루지 못한 것이요, 退溪의 文章은 베를 짜되,匹을 이룬 것이다」(星湖僊說 卷十, 下 詩文篇 論文門 南冥文)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通해 볼 때, 織錦未成匹과 織布而成匹의 差는 조그마한 差가 아니라, 大差다. 溫敦純靜으로써 成一家하였다고 볼 수 있다.

要是 退溪의 詩와 文은 一家를 이루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의 確固不動한 理學的 哲學觀 속에서 華彩와 淫哇를 배격하고, 純靜·溫敦·清敏·枯淡한 詩를 써서 道學君子들의 抒情表現의 모범이 되었고, 溫敦하고도 論理整然한 文章을 써서 道學君子들의 叙事表現의 모범이 되었으니 그의 詩文은 흡사 織布成匹의 感이 있어 이 方面에 一家를 이루었다.

#### 4. 陶山十二曲의 純靜·敦厚·自然性

##### (1) 머리말

東方의 儒宗인 退溪는 우리의 儒學界에 빛나는 長庚星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理氣互發 理發氣隨 氣發理乘說을 主唱한 性理學의 大家로서 平生을 道學研究에 心血을 傾注한 溫恭한 大哲人이었으나, 文學의 抒情性이 또한 남달리 秀逸하였다.

近體 淡詩의 抒情美가 溫柔 敦厚함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哲學研究의 餘暇를 빌어 우리의 固有한 文學장르인 時調文學을 通하여 退溪의 道學君子다운 溫雅한 抒情의 美感을 十分吟咏하였다. 그것이 바로 陶山十二曲이다. 그러나 偶然한 一致인지는 몰라도 退溪와 더불어 朝鮮朝 儒學界에 雙璧을 이루는 栗谷은 晩年 黃海道 海州에 물러가 朱夫子의 武夷九曲歌를 본받아 우리의 時調形을 빌어 高山九曲歌를 지어 오늘에 빛나고 있다.

이 陶山十二曲이나 高山九曲歌는 當時 哲人 道學者의 詩歌生活를 엿보는 매우 重要한 文學事象이라 하겠다.



이 十二曲은 名稱과 같이 全部 時調十二首로 連時調形式을 取하고 있으며, 內容上으로 볼 때는 다시 前六曲 後六曲으로 되어 있으므로 흔히 「陶山六曲」이라 불려 왔다.

卷末에 退溪自著의 序文이 붙어 있으므로 그의 創作 動機와 創作年代를 分明히 알 수 있고, 또 그의 詩觀도 窺知할 수 있다.

(2) 創作年代.

陶山十二曲序文 末尾에

「嘉靖44年 歲乙丑 春春 既望 山老書」라 하였으니 分明히 明宗 20年 (A. D. 1565) 退溪 65歲 때, 3月 16日에 이룩된 作品이다. 그 以前부터 지어 놓은 것을 이 때 정리하여 발표된 것인지는 볼라도 文獻의 記錄上으로 볼 때, 이렇게 斷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는 退溪 捐世하기 6年前이요, 退溪의 학문이 무르익어 名振四海하던 最晩年期였다.

그의 年譜에 의하면,

「四月에 上狀請解同知中樞府事한데 伝曰 予當待卿하여 虛位多年이어늘 而強求退閑하니 此는 予待賢之誠이 不足而然也라. 但以 卿意深切故로 勉從이라 하고 仍命本道하여 賜食物하다. 聞文定王后喪하고 哭臨成服하다. 書敬齋箴圖와 白鹿洞規圖와 名堂室語하여 揭諸玩樂齋壁上하다. 八月에 與諸生으로 講啓蒙하고 改定景賢錄하다. 12月에 以特命召하여 復拜同知中樞府事하다」 (退溪全書 言行錄 卷7, 年譜 中)

라고 한 것을 볼 때, 일찌기 宦路에 발을 끊고 大自然속에 돌아가 理學을 연구하여 聖人君子가 되려고 애쓰면서 同知中樞府事마저 마다 하고 오직 強求退閑하여 大自然의 閑靜界에서 學問研究에만 琢磨功을 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해 12月에 上監의 特命으로 不得已 다시 同知中樞府事란 벼슬을 拜하였으며, 이듬해 明宗 21年 (66歲) 正月에 召命이 내렸으나, 稱病하고 固辭하더니 심지어 工曹判書 兼藝文館提學,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春秋館事, 資憲大夫知中樞府事 등을 내렸으되 暫時 出仕하였으나, 이어 固辭하고 말았으며, 67歲 (明宗22年 A. D. 1567) 때, 7월엔 禮曹判書兼同知經筵 春秋館事를 拜하였다가 八月에 再辭 南歸하니 八月엔 龍驤衛大護軍兼同知經筵 春秋館事에 被召되어 同知中樞府事를 拜하였다가 이어 上辭狀하였으되, 68歲 (宣祖 1年 A. D. 1568) 때, 正月엔 上疏自劾하고 乞致仕 하곤 召命을 固辭하니 崇政大夫 議政府右贊成에 오르게 하여 趣行타가 이어 固辭하였고, 그 해 8月에 兼弘文館大提學 芸文館大提學을 拜하였으므로 疏陳六條하고 未久에 固辭하고 말았으며, 69歲 (宣祖 2年 A. D. 1569) 때, 正月엔 吏曹判書를 내렸으나, 以病三辭하여 許免하였다. 이와 같이 屢次 召命이 내렸으나 連辭하되 上監이 許하지 않았던 名儒大人인지라, 拳拳研鑽하던 學問과 泉石閑靜의 悅樂世界를 버리고, 시끄러운 宦路에 나가갈 것이라.

現職에 出仕하여 事君報國하는 것도 爲國精忠이겠으나, 官에서 물러나 田園에서 立學行道하여 나라에 보답하고 蒼民을 올바르게 善導하는 것도 어찌 報國이 아니라. 退溪는 學을 세우고, 道를 닦아 聖人에 이르고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所謂 修己治人の 理

想을 갖고 人間을 살아갔던 것이다.

東方의 儒宗 退溪가 晩年 學이 무르익었을 무렵 65歲(明宗 20年 A. D.1565) 때, 傳統的인 우리의 固有時調形을 빌어 陶山十二曲을 짓고, 그의 言志學的 敦厚實朴한 抒情을 吐露하였다.

### (3) 創作動機

退溪는 젊었을 때 부터 詩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듯 하며, 鑿岩野錄에는 跋文을 지었고 少時에 安東府 老妓로부터 漁父歌를 들어서 嘉賞히 여겼으나, 全調를 얻지 못하고 노상 유감으로 여기다가 頃歲에 密陽 朴浚의 歌集에서 그것을 얻어 매우 기뻐하였으니 그의 詩歌鑑賞은 일로써 十分 알 수 있다. 이러한 詩歌鑑賞의 修練 가운데서 天賦의 力量을 根幹으로 批評能力이 기루어지고, 자신의 詩觀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는 天資穎悟하고 神彩精明하며, 性品이 어릴세부터 端嚴하며 狎弄을 기뻐하지 않고, 커선 학문을 좋아하고, 道義를 기루었다. 총명 正直하며, 孝悌忠信으로 精純溫粹 하며 氣和하여 굳세고, 辭婉하여 곧고, 그리고, 學博而要하고, 行全而篤하고, 清而不激하고 公而不矯하고, 慕古而不滯하고, 處世而不流」(退溪全書 4, 言行錄 卷1 趙穆撰)라고 한 그 君子的 溫恭 精純한 大人인지라, 그의 詩觀도 溫柔敦厚한 詩世界에서 人間을 槩視코자 하였다.

그 創作動機도 溫粹 精純한 君子的 性品에서 浮哇한 세계에서 벗어나 健實하고 溫恭不淫한 詩歌를 要請하였던 것이다.

退溪의 陶山十二曲跋에 말하기를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 語多淫哇不足言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 尚推近世有李龜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閒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退溪全書 5, 陶山十二曲跋)

이 跋文을 통해 보건데, 우리 나라 歌曲은 매우 淫哇하고, 저 高麗 高宗 때, 翰林諸儒가 지은 景幾體歌인 翰林別曲類도 諸文人들에 의하여 지어졌다 할지언정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君子들이 읊을것이 못된다고 말하였을 뿐아니라, 요즘 李龜六歌란 것이 世上에 喧傳되어 前者보다는 나을망정 애석하게도 玩世하여 溫恭의 뜻이 없고, 禮記에도 말하듯이 溫柔敦厚의 實이 적었다. 退溪는 音律에 曉通하지도 못하고, 世俗의 樂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한가이 병고치는 여가에 性情을 느끼는 것을 詩로 불렀다.

그러나, 요즘 詩는 옛 詩와는 달라서 읊을 수 있으나, 노래 부를 수 없다.

만약 노래 부르고자면, 우리말로 짓지 않을 수 없으므로 不得已 時調로 表現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李驚六歌를 본받아 여기 陶山六曲을 지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래가 너무 淫哇하고, 또한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며,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었고, 漢詩는 頌詠할 수 있지만 歌唱할 수는 없기에 歌唱하려면 우리의 노래를 지어 歌唱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李歌를 略倣하여 陶山六曲을 지었던 것이다.

前後 兩曲을 通해 볼 때, 不過 十二曲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엔 退溪人格이 송두리째 表現되어 있는 듯 하며, 溫恭<sup>1</sup>優雅 健實厚朴한 옛 道學君子의 人格에 接한 듯한 感이 나는 陶山十二曲 그는 千秋에 滅하지 않는 退溪 抒情의 蜜花였다.

#### (4) 陶山十二曲의 板本과 書風

이 二十曲의 木板이 安東陶山書院에 保藏되어 있는데 이것은 退溪 親筆을 刻板한 것이다. 이 板本은 언제 板에 새겨졌는지 分明하지는 않지만 退溪自身이 그 跋文에,

「願自以蹤跡頗垂 若此等閑事 或因以惹起鬧端 未可知也 又未信 其可以入腔調借音節與未也 故寫一件 藏之篋笥 時玩以自省 乙以待他日覽者之去取云爾」

라고 한 것을 볼 때, 退溪生存時엔 寫本으로 備藏되었던 것을 그의 逝去後에 刻板하여 오늘에 傳하였다고 본다. 굳이 刻板年代를 推定한다면, 沙村集 江湖戀君歌 跋文에 「余少時 因友人 李平叔 得視退溪先生陶山十二曲歌 …… 眞三百篇之遺旨也 傳寫一本 藏諸篋笥 …… 不幸見失於兵火之中 今已十年 僅能記得數三曲 …… 頃者 適到月波軒 偶得印本 及前所謂陶山之六曲也」 (沙村集 江湖戀君歌跋)

라고 하였으니 沙村 晩年에 陶山六曲의 印本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沙村이 젊었을 때, 친구 李平叔으로부터 陶山十二曲을 얻는데, 이것이 傳寫되었다가 不幸히도 兵火속에 잃은지 十年이 되었다. 겨우 數三曲을 얻었더니 最近에 月波軒에 이르러 偶然히 印本을 얻었는데 이것이 「陶山六曲」이라고 述懷하였다.

그러므로 沙村은 退溪보다 47歲 年下로 退溪가 陶山十二曲을 지었을 때는 沙村의 나이 不過 19歲의 紅顏少年이었다.

沙村의 跋文을 믿는다면, 少時에 얻은 것은 「陶山六曲」의 寫本이겠고, 그가 「江湖戀君歌」를 지었을 때는 沙村 65歲 때인데, 退溪歿後, 43年째다. 沙村이 65歲 때, 「江湖戀君歌」를 짓기 몇 해 前에 陶山六曲의 印本을 얻었다고 그의 跋文에 述懷하고 있으니 退溪歿後 약 40年間에 陶山六曲 板本이 이룩되었으리라 推定한다. 그러므로, 陶山六曲 板本 成立年代는 1570(宣祖 3年)에서 1601(光海 2年)사이가 아닐까 한다.

오늘날에 傳하는 靑丘永言·海東歌謠·瓶窩歌曲集·歌曲源流 등 流布歌集에도 収載 되어 傳하지는 거기에 綴字 等 訛傳된 부분이 많다. 多幸히 作者 親筆의 板本이 現傳되어 그

眞影을 볼 수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陶山六曲 木板本 筆者所藏本)

이 陶山十二曲은 時調가 十二首로 四張, 末尾이 退溪自身이 쓴 跋文이 一張半으로 총 五張半밖에 안되지만 그 文學的 秀逸性은 永遠히 빛나는 太白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우리들은 陶山十二曲이라 하지만은 그 原板木엔

「陶山六曲之一」이라 기록하고 各時調엔 「其一・其二・其三・其四・其五・其六」이라 붙이고 그의 抒情을 依托하였으며, 또 이어 「陶山六曲之二」라 기록하고, 各時調엔 「其一・其二・其三・其四・其五・其六」이라 붙이고, 그의 抒情을 吐露하였으니 「陶山六曲」이라 해도 無妨하리라. 그러나, 그가 쓴 跋文엔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十二首의 連時調形을 取하고 있으므로, 筆者는 「陶山十二曲」이란 명칭을 使用하였다.

이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書風에 대해서 一言하면, 僞本의 右軍체를 받아 그의 精純 溫華한 人格이 어리어 이룩된 글씨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刊本書風이 新羅는 率更體(歐陽詢), 魯公體와 六朝體가 流行되었다. 近年 慶州 佛國寺 釈迦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 大隨羅尼經」의 印本이 발견되어 世界最古의 現在印本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書風이 寫經體로 率更體를 기본으로 하고, 魯公의 風을 兼한 글씨이며, 海印寺 吉祥塔記도 歐體顔情이다. 그러나, 皇福寺 塔誌는 六朝風을 띠었다. 이렇게 新羅 印本엔 率更・魯公・六朝體가 유행되었으나, 書藝界에선 右軍體를 받아 大成한 海東書聖 金生 등이 나타났고, 高麗에 들어와선 前期엔 率更體가 그 主流를 이루고, 后期엔 王右軍體를 받아 이룩된 默庵體(坦然體)가 유행되었으니 所謂 率默兩體가 兩大分水嶺을 이루더니 麗末엔 松雲體가 傳來되어 麗朝 印本の 新天地를 開拓하였으며, 저 유명한 八萬大藏經體는 率更體를 받아 美化된 所謂 大藏經體였다.

그러나 李祖 初期의 刊本은 松雲體가 支配的이었다. 牧隱의 詩稿나 安惠書인 彌陀經은 그 代表的 例로 들 수 있다.

그리고, 活字에 있어서도 松雲體였다. 安平大君 鄭蘭宗과 같은 松雪體 大家들의 글씨로 이룩된 것을 보아도 당시의 崇尚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이렇게 國初 全盛期를 지나자 松雪體의 經妍美에 亞증을느껴 王右軍體로 기울어져 所謂 王・趙 合流式의 書風이 유행하였으니 그 대표적 大家는 名筆 韓石峯이었다. 그래서 刊本도 宣祖를 前後해서는 白沙集・芝峰類說 등 많은 刊本이 모두 石峯風의 筆致로 되어 있어 그것이 斷然 第一位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차츰차츰 刊本體를 형성하여 朝鮮朝 刊本字樣의 한 형태를 이루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李朝는 王・趙體가 그 主流를 이룩하였으나, 李朝末에 이어서는 各體

를 綜合하여 所謂 秋史體를 創造해낸 金阮堂같은 大名筆도 났지만 朝鮮中期엔 亦是 王趙筆이 환영을 받아 韓石峯같은 大家를 내쳤으니 退溪 또한 例外는 아니었다. 退溪의 書體는 晉의 書聖 王右軍體를 익혀 그의 健實 溫敦한 君子의 人格이 溶解되어 所謂 退溪體로 凝結된 筆致다. 이 陶山十二曲은 退溪 晩年 六十五歲 때, 쓴 것이며, 退溪體로 굳어진 뒤의 書風일 뿐만 아니라, 國漢文混用體로 特異한 薰香이 흘러 넘친다.

그러나, 退溪의 弟子인 松溪 權應仁은 晚唐의 詩風을 받아들여 큰 轉換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詩評에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는 일찍이 退溪에게 「남작 글씨」「다닥 風月」이라 評하였다.

「權松溪應仁 居星州 退溪先生弟子也……能文章 七入燕京 三使馬島 嘗言于退溪曰 “先生少止澹薄風月 濃黑草書 則先生之道德益高” 風月者 東俗所謂詩也」

(靑莊館全書 卷68, 寒竹堂涉筆 上)

라고 말한 것처럼 「澹薄風月·濃黑草書」라 하였으니 氣高奇驚古拙流麗美가 入神之境은 아닐지언정 端勁 溫和 整齊 君子의 精이 凝縮된 筆致가 道學者다운 書風이라 할 수 있으며, 所謂 退溪體의 性格이 如實히 드러나고 있다. 書藝大家는 아닐지언정 道學者로서 端雅 健實 整齊된 濃墨美를 鑑賞할 만 하다고 본다. 退溪以後 安東地方의 글씨體가 退溪體에서 脫皮 못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맴돌고 있어 個性이 뚜렷하고 죽죽 떨어가는 創意性 있는 다른 書體로 발전되지 못함이 유감이다.

그러나, 詩章 書藝의 妙는 道學者인 退溪에 있어서는 특히 그 餘事에 지나지 않지마는 그는 因文入道한 학자인만큼 이 방면에 宿工이 있어 일찍부터 能聲을 博하고 能筆로서 도 학자 群의 標準이 되었다.

그의 學友요 湖南의 巨儒인 金河西가 退溪에게 보낸 詩가운데, 「李杜文章王趙筆」이라고 退溪의 文筆을 激賞하였으니 그는 道學者로서 名聲이 높을 뿐 아니라, 文章은 李太白과 杜甫요, 筆法은 王羲之와 趙孟頫라고 한 말이겠다. 河西의 이 말을 通해 보나 陶山十二曲 등 刊本 筆法이나 與長子受之書나 陶山雜詠 등 其他 많은 生筆을 보건데, 退溪는 文人 書藝家로서도 훌륭한 一家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筆法의 方正端勁과 한가지 詩章에 있어서도 一字一句도 選鍊精思의 힘을 겪어 이룩되지 아니함이 없었다.

退溪 言行錄에

「先生筆法 端勁雅重 其大字亦方嚴整齊 非如他名家者 但尚奇怪而已 (鄭惟一) 先生雖偶書一字 莫不整頓 點畫字体 方正端重 雖偶吟一絕 一句一字 必精思更定 不輕示人 (李德弘) (增補 退溪全書 四, 言行錄 卷5, 雜記 李德弘)

이라 하였으니 退溪의 筆法이 端勁雅重하고, 큰 글자는 方嚴整齊되어 奇怪을 숭상하지않

있을 뿐 아니라, 點画字体도 方正端重하였다.

이런 詩章 字劃의 妙는 退溪의 一生을 通한 性度温醇하고 粹然히 玉과 같으며, (言行錄 卷 1, 李栗谷撰) 語默動靜이 慎詳閑泰하고 (言行錄 卷 1, 趙穆撰) 端正한 性格의 反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心法 心學에서 鍊出되는 것이기에 보통 疏放한 文人書藝家와는 자연 그 類를 달리하게 된다.

退溪는 習書에 대하여는 뚜렷한 主見이 서 있었다.

字法從來心法餘	習書非是要名書
蒼義制作自神妙	魏普風流寧放疏
學步吳興憂失故	效顰東海恐成虛
但令點劃皆存一	不係人間浪毀譽 (退溪全書一卷 3, 詩 習書)

이렇게 읊은 詩를 通해 보면, 그는 매양 書藝는 心法과 名法帖에 의함을 주장하였다. 또 退溪는 말하기를

「近世 趙張書 盛行 皆未免誤後學」 (全上)

이 말로 미루어 보면, 退溪當時엔 趙松雪·張旭 等の 書法이 유행되었던 모양이며, 이 趙張書는 後學들을 그르치게 하는 書法이라고 생각하였으니 退溪는 이 趙張書法을 배척하고 書聖 王右軍을 익혀 道學者的 書藝家의 一角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는 心法으로 名書에 따르고, 點畫이 하나에 어리게 하는 精詳端勁한 筆致의 姿勢, 退溪의 人格이 온통 그 書中에 靈動하고 있다.

一見 陶山十二曲의 筆致속엔 右軍體를 익혀 退溪의 端正慎詳한 人格이 生動하고 있는 創意的 書法임을 말할 것도 없다.

#### (5) 陶山十二曲의 純靜性

이 十二曲은 野하지도 않고, 卑하지도 않고, 悲하지도 않고, 痛하지도 않고, 病없이 앓는 것도 아니고, 울음없이 눈물 지우는 것도 아니다. 오직 純而靜 靜而純, 高而古而高 深而長 長而深, 閑而情 情而閑, 自然而自然的 自然的而自然, 大自然美를 발견하고, 抒情의 基本美意識을 調和以現함으로써 꾸밈없는 自然의 아름다움을 創意的으로 읊조리고, 그 속에서 人間 理氣의 精粹를 探求領得하여 萬世不朽의 學立德潤을 鼎立하였다. 君子의 純靜性과 高尚優雅美가 字字句句에 서리어 있는 陶山十二曲의 全時調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陶山六曲一〉(前六曲)

- (1) 이런듯 엇다흐며 더런듯 엇다흐로  
 草野愚生이 이려타 엇다흐로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타 브슴흐로
- (2) 煙霞로 지불삼고 風月로 비들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니  
 이등에 브라논 이룬 허므리나 업고자
- (3)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울흐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겨 말숨홀가
- (4) 幽蘭이 在谷흐니 自然이 듣디요해  
 白雲이 在山흐니 自然이 보디요해  
 이등에 彼美一人를 더욱 넋지 몬흐애  
 (一云 이등에 고은 흐니를 더욱 넋디 몬흐뇌)
- (5) 山前에 有臺흐고 臺下에 有水 | 로다  
 예 만흔 글머기는 오명갈명 흐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 무 슝 흐논고
- (6) 春風에 花滿山흐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 수름과 흥가지라  
 흐물며 魚躍鳥飛 雲影天光이아 어뇌 그지 이슬고

〈陶山六曲二〉(後六曲)

- (1)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巖蕭酒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흐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넘어 브슴홀고
- (2) 雷霆이 破山흐야도 聾者는 몬듣느니  
 白日이 中天흐야도 瞽者는 몬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聾瞽군디 마로라

(3) 古人도 날보고 나도 古人 묻되  
 古人를 묻봐도 너던길 알찌 잇네  
 너던길 알찌잇거든 아니네고 엇덜고

(4) 當時에 너던 길홀 멧힘을 불러두고  
 어되가 둔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사 도라오나니 녀되 막 슌 마로리

(5) 靑山논 엇데하야 萬古애 프르르며  
 流水논 엇데하야 晝夜애 굿디 이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6) 愚夫도 알며 알거니 거아니 쉬운가  
 聖人도 묻다 하시니 거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낫등에 늙는주를 몰래라

前六曲은 「言志」, 後六曲은 「言學」을 나타내었다고 退溪自身の 跋文 속에 말하고 있다  
 「陶山六曲者 二焉 其一言志 其二 言學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焉凡而聽之亦令兒輩 自歌  
 而自舞蹈之 庶幾 可以 蕩滌鄙吝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陶山十二曲 板本 跋文)

윗 跋文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六曲을 아이들에게 朝夕으로 익히게 하고, 노래 부르게하  
 고, 그 노래에 맞추어 춤추게 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면서 기  
 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純靜하고도 健全한 노래를 통하여 아이들의 抒情을 昇化시키고 기쁨의 날을  
 보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健全한 노래의 大衆 娛樂性을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退溪의 溫  
 柔敦厚性을 養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前六曲은 言志라하고, 後六曲은 言學이라 하였으니, 前六曲에서는 때를 만나고  
 事物에 다쳐 일어나는 心情的 所感을 읊었으며, 後六曲에서는 學問修養의 心境을 抒情의  
 扁舟에 실었다. 前後六曲이 不過 十二曲에 지나지 않지만은 溫恭優雅하고 端重健實한 道  
 學君子인 退溪의 高邁한 人格에 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詩歌다.

이 작품들은 읽으면 읽을 수록 純靜의 美感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솟아  
 오른다. 그는 儒學에 있어서는 東方의 夫子라 칭송되고 있을 뿐아니라, 漢詩文에 있어서  
 도 當時 文壇에 定評이 있고, 또 우리 詩歌에 있어서도 陶山十二曲과 같은 秀作을 남겨  
 우리의 詩歌文學史上에 不朽의 金字塔를 쌓은 것은 退溪가 素素 그 방면의 修養과 人格이



凝縮된 所以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點에서 이 노래는 朝鮮朝 性理學者 詩歌의 代表的 逸品이요, 一般 詩歌中에서 卓爾한 秀品이라 여긴다.

前六曲은 退溪自身이 言志라 하였는데, 偶時偶物에서 일어나는 感興을 表現하였다.

書經 舜典篇에 「詩言志 歌永言」이라 한 말을 使用한 것이다. 그리고 原始時代의 詩歌 形態를 心理的으로 설명한 毛詩序에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嘆之 嗟嘆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也」

라고 한 말을 吟味하면 退溪 言志의 眞髓를 窺知할 수 있다. 詩라고 하는 것은 뜻의 나가는 바요,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 뜻이 말로써 表現되었을 때, 詩가 이루어지며, 人間의 基本情緒(Fundamental emotion)가 마음 가운데서 震動하여 言語로 表現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文學排列에 一定한 規律가 있는 것을 律文이라 한다면, 一定한 律格 또는 韻律(metre)에 의하여 音樂의 言語로 創作된 文學形式이 詩歌이므로 退溪가 言志라고 본 것은 詩의 內容 卽 詩意를 定義하여 言之라고 하였던 모양이다.

東岩言志와 「陶山言志」를 읽어보면 더 한층 「言志」의 情을 알수 있다 言志는 곧 抒情의 詩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天開眞樂無涯地에 築室優游思莫緘」이라 부르짖었다. 邵康節 詩集에 말하듯이 이 바위가의 小書室의 樂은 나의 眞樂이니 그樂은 참으로 그치지 않다. 無涯眞樂은 「東岩言志」와 「陶山言志」에 서렸다.

東岩言志

別巖搜奇得古岩	幽居從此更非凡
休論費力開堂宇	且待成陰植桧杉
已著幼輿安用畫	可藏商浩不應饑
天開眞樂無涯地	築室優游思莫緘 (退溪全書 三 續集 卷一詩 p. 29)

陶山言志

自喜山草半已成	山居猶得免躬耕
移書稍稍旧龕盡	植竹看看新笋生
未覺泉聲妨夜靜	更憐山色好朝晴
方知自古中林士	萬事揮忘欲晦名 (增補 退溪全書 一卷 3, 詩 p. 114)

山堂이 워 책을 기고 매집어 감상하면서 샘소리 산빛 속에서 一念 學道로 치달는 듯된 人間의 모습, 陶山을 사로잡은 道學君子 退溪는 陶山言志 속에 우뚝이 섰다.

그러나, 後六曲은 退溪自身이 「言志」라 하지않고, 「言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學文修養의 心境을 詠出했다는 뜻이겠으나, 前曲과 같이 「言志」만은 否認을 하지 못할 것이다. 學에 힘쓰고, 修養을 하는데 心血을 기울여야 됨을 주장한 言外有意 意外有言이라 하겠으며, 修學存養의 人間 教訓이 스며 있으나, 抒情의 表現이 어색하지 않고 自然스러웠다. 健實한 訓誨美感이 말밖에 스며 있는 後六曲이다.

#### (6) 自然文學性

우리 文學史上에 自然의 美는 아득한 옛날 上古文學에서 이미 나타났고, 新羅의 詞體歌나 高麗의 歌謠에도 더 한층 昇化되었으나, 朝鮮初期의 孟古佛의 江湖歌道에서 自然美는 作品 속에 더욱 深化되었다.

그 뒤 中明宣朝 雙僂兩翁에 이르러선 우리 詩歌史上에 劃期的이라 할 江湖歌道를 樹立하였다.

雙岩은 벼슬을 辭退한 뒤 옛 故里에 돌아가 宅邊엔 明農堂을, 汾川上엔 愛日堂을 짓고 大自然속에 悠愴自適하였으며, 僂仰亭은 巖峰下에 石林精舍와 僂仰亭을 구축하여 自然을 즐겼다. 雙岩은 漁父詞를 얻어 汾川上에서 불렀고, 僂仰亭은 자신이 노래를 지어 僂仰亭上에서 불렀다. 雙岩은 方外의 벗으로서 詩僧이 있었으나, 僂仰亭은 같은 友僧이 있어 一層 그의 大自然 속 閑情을 도왔던 것이다. 僂仰亭은 훌륭한 作家였지만 雙岩은 作家라기 보다 愛好家요 鑑賞家였다.

兩翁의 性格이 多少 다르긴 하나, 그 根本인 自然 속 江湖歌道 樹立엔 劃期的 役割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雙僂兩翁의 江湖歌道는 그 뒤 直接間接으로 後世 作家 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니 여기에 말하는 退溪의 陶山十二曲이나, 栗谷의 高山九曲歌엔 多分히 그러한 精神이 녹아 들었고, 國文學의 最高峯이라 할 수 있는 松江의 詩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松江의 星山別曲은 僂仰亭歌 영향아래 이루어진 名作이다. 이 自然美 發見의 江湖歌道는 그 時代相이 所以然케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雙僂兩翁은 분명히 이 方面 歌道의 先唱者요, 樹立者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當時 大自然의 美가 크게 理解되어 山水를 즐기는 文人學者와 江湖閑情을 즐기는 致仕閑客들이 許多하여 하나의 自然文學 곧 江湖文學을 이루었다.

그 옛날 晋나라 田園文學의 祖宗인 陶淵明은 田園生活文學者로서 主觀的 自然을 그렸으나, 反對로 山水派의 祖宗인 謝靈運은 아름다운 泉石의 客觀的 自然을 그려 人間에 雄飛하였다. 여기 退溪나 雙岩·僂仰亭도 陶淵明의 自然을 歛慕하긴 하였으나, 그 自然美의 表現은 淵明과같이 主觀的 自然이면서, 客觀的 自然美로 치닫는 느낌이 난다. 人間 속 高요한 自然美가 陶山十二曲에 溶解되었다. 한것없이 아름다운 主觀的 自然美가 退溪의 붓끝으로 스켓치 되었다. 退溪의 江湖歌道도 亦是 雙僂兩翁의 歌道와 비슷하였다.

退栗이 東方 大賢으로서 自然文學의 美속에서 理學을 닦았다.

「三曲은 어드메오 翠屏에 일켜졌다

綠樹에 春鳥는 下上其音 하는 적에

盤松에 受風을 하니 여름 景이 업세라」 (瓶窩歌曲集 高山九曲歌 其三曲)

이렇게 翠屏의 泉石美를 즐기고 時調形을 빌어 高山九曲의 自然美를 眞率히 描寫 하였

다.  
「一曲은 冠岩, 二曲은 花岩, 三曲은 翠屏, 四曲은 松崖, 五曲은 隱屏, 六曲은 釣峽, 七曲은 楓岩, 八曲은 琴灘, 九曲은 文山」이라 命名하고, 이들의 風景美를 읊은 것이 곧 高山九曲歌였다. 全体 十首의 時調로 되어 있으며, 第一首는 九曲歌의 序曲이라 할 수 있고 第二首 以下는 一曲에서 九曲에 이르렀다.

여기 그 全時調를 들어 보면,

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誅茅卜居호니 벗님닌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호고 學朱子을 호리라

一曲은 어딤오 冠岩에 흰 비쨌다

平蕪에 닌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鱒을 놓고 벗 오논양 보노라

二曲은 어딤오 花岩에 春晚커다

碧波에 곳을 적워 野外로 보닌노라

사람이 勝地를 모르니 알게 호들 엇더라

三曲은 어딤오 翠屏에 닌 퍼졌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 호는 적의

盤松이 바름을 바드니 너름잖이 업세라

四曲은 어딤오 松岩에 흰 넘저다

潭心 岩影은 온갓빛치 좀겨세라

林泉이 김도록 호호니 興을 계워 호노라

五曲은 어딤오 隱屏이 보기도타

水邊 精舍은 灑洒호도 古이업다

이 중에 講學도 호려니와 咏月吟風호리라

「이런듯 엇다흔며 더런들 엇다흔로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흔로

흔몰며 泉石膏肓을 고틀르므슴하로」 (前六曲 其一)

이와 같이 大自然의 美를 즐기는 것이 온통 膏肓이 되었다. 草野愚生으로 泉石을 사랑하는 것이 한 病癖이 되었다고 부르짖었다.

「煙霧로 지불삼고 風月로 버들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네

이등에 브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前六曲 其二)

집은 煙霧요, 벗은 風月이다. 이 自然속 聖代에 無病而老하고 無咎而終을 하는 것은 退溪의 純靜性이 드러나고 있으며,

「幽蘭이 在谷하네 自然히 들디도해

白雲이 在山하네 自然히 보디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를 더욱 닛몬하애」 (前六曲 其四)

여기 幽蘭白雲의 個別的 自然 속에서도 主上을 잊지 못하는 忠情이 發露되었으며,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

흔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 어느 그지 이슬고」 (前六曲 其六)

春風 秋夜 花月의 美와 魚鳶雲天의 自然美 속에 退溪는 兀然히 있다. 또한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齊 蕭洒흔 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하애라

이등에 往來 風流를 널어 므슴 흘고」 (後六曲 其一)

天雲 玩樂이 고틀란 곳에 萬卷書를 쌓아놓고, 벗을 즐기는 樂事 또한 退溪는 據得하였다. 佛敎의 無常觀과 無碍觀은 秋毫도 보이지 않고, 現實의 修道觀과 君子의 聖者觀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主觀의 自然文學의 美意識을 創造하면서 그 江湖 閑靜 속에서 學에 餘念이 없고, 道 닦아 聖人 君子로 치달았다.

退溪의 自然은 단순한 自然이 아니라, 東方 理學을 大成하는 道場 環境의 自然이요, 聖人君子로 치달는 人間 속 自然美의 發見이라 하면 可할가, 客觀의 自然의 스켓치라 할지 언정 그 自然의 美를 領得하고, 그 美를 감상하면서 그의 정신을 淸靜케 하고, 立學求道하고 聖人에 達하고자 힘썼다. 對境의 眞像인 自然美를 내 것으로 끌어 主觀의 自然美의 眞粹을 領得하였다. 梁谷도 晩年에 海州에 돌아가 精舍를 짓고, 高山九曲歌를 경영 하면서 朱子의 武夷九曲을 본받아 高山九曲歌를 지어 泉石을 즐기면서 學文과 修養에 힘썼다

六曲은 어덕미오 釣岩에 물이엿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느고  
黃昏에 낙딕줄 메고 帶月歸를 흐노라

七曲은 어덕미오 楓岩에 秋色도타  
清霜엿게 치니 絶壁이 錦繡로다  
寒岩에 혼죽 안자서 집을 잇고 잇노라

八曲은 어덕미오 琴灘에 들이 붉다  
玉軫 金徽로 數三曲을 노는말이  
古調을 알이 업스니 혼죽즐겨 흐노라

九曲은 어덕미오 文山에 歲暮커다  
奇岩怪石이 눈속에 무쳐새라  
遊人은 오지아니하고 볼것업다 흐더라

위에 든 4首의 高山九曲歌는 自然風景美를 그림같이 그려내었다. 詩中有畫의 眞境 이라 할까? 그의 詩風을 엿보면, 退溪時調와의 엄연히 다름을 나타내었다.

退溪時調와 같이 端重 優雅한 맛은 없지마는 清爽 純朴한 맛은 있으며, 深思의이고 深長性은 없으나, 感傷의이고 素朴性은 있다. 何如튼 退溪의 自然文學性이나 栗谷의 自然文學性이 主觀의 客觀自然 描寫의 그 軌를 같이 하면서도 詩情과 詩想이 다르며, 退溪는 優雅하고 意深語端雅하며, 沈潛의이었으나, 栗谷은 清絶하고 意淳語朴爽하며, 精簡의이었다고나 할까.

이렇게 된 것은 作者의 天賦素性과 年歷, 環境의 差와 그 形而上學의 哲學觀에서 各己 特有한 抒情의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7) 溫敦 深思性

輕快清新도 문제거니와 溫柔敦厚하고 純靜의 美가 온時調를 꿰뚫고 있어야했다. 高尚한 抒情속에서 人間의 道가 含蓄性있게 남몰래 메타포아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엘린·테이트가 말하듯이 詩는 外延(extension)과 內包(intension)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單一擴張의 隱喻(single extended metaphor)를 작품의 통일요소로서 追求하였다면, 意味의 諸層(level of meaning), 言外의 有意(clashes of connotation)와 深長·深思·含蓄性을 엿볼 수 있다.

古人도 날 몰보고 나도 古人 몰뵈  
古人을 몰뵈도 너던 길 알리잇네  
너던 길 알딕 잇거든 아니너고 엿덜고 (後六曲 其三)

當時에 녀던 길홀 멧히를 버려두고  
 어되가 둔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사 도라오나니 녀되 맛음 마로리 (後六曲 其四)

옛 聖人이 닦아놓은 正路를 가야 함에도 不拘하고 그 正路를 버려두고 헤메다가 늦게  
 나마 돌아와 一念求道하고 正路를 가야 하는 心境이 말밖에 도사리고 앉았다. 退溪의 道  
 學者的 純靜無比한 人間像이 서리어 있다. 또한 哲人的 深思의 深長性이 言外에 계뚝고  
 있다. 人間正道가 言語美속에 昇化되었다. 詩想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의 言  
 語美를 잘 表現하여 션으면 션수록 맛이 나게 凝縮과 含蓄으로 美化하였다.

高次の 調和요, 패라독스의 언어는 아닐지언정 溫厚한 言語의 深層 속에 擴張의 메타  
 포아가 躍動하고 있다. 또한

靑山는 옛메흐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메흐야 晝夜에 굶디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히리라

靑山 流水와 같이 萬古常靑 萬古不止의 抒情味의 純靜 深長性이 退溪를 들렀고, 아무 꺼  
 리낌없이 쭉쭉 뻗어가는 침인양 悠然히 멧힘없는 抒情이 人間の 心琴을 울린다. 萬古에  
 푸른 言語속 眞理의 鑄坐가 서려 있다.

愚夫도 알며흐거니 과 아니 쉬운가  
 聖人도 묻다 흐거니 과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등에 늙는주를 몰래라

聖人 愚夫가 事理에 難易이나, 그 속에 守拙하여 늙는 줄을 모르니 果然 端重한 退溪  
 人格이 드러나고 있다. 溫敦한 美感이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退溪의 陶山十二曲은 정말 그의 人格처럼 端重하고 깊이 있던 詩歌란 것은 누  
 구나 一讀하면 느낄 수 있다. 退溪는 때로는 이것을 玩詠하곤 自省의 具로 하였으며, 아이  
 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불러서 들을 뿐만 아니라, 아이 자신들도 스스로 노래부르고  
 스스로 춤추는 가운데 感發融通케 하였다. 이 노래에 溫敦純靜의 德이 여기에 나타나 있  
 으니 그의 詩歌生活이 餘他 歌人들과 다름을 窺知할 수 있다. 모라리스의 詩人으로서의  
 退溪의 抒情이 흘러넘쳤다.

이와 같은 優雅·純靜·深思·含蓄의 凝縮味를 갖고 있는 陶山十二曲은 長生不滅의 生  
 命体요, 아카시아의 숲이 아니라, 靑史에 빛나는 살벌이었다.

淵明以前에 淵明없고, 淵明以後에 淵明없다고 하는 말처럼 退溪以前에 退溪없고, 退溪  
 以後에 退溪없다고 한다면, 그의 敦厚한 詩歌 또한 退溪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라.

(8) 主觀性과 音樂性

陶山十二曲은 抒情詩요, 主觀詩다. 서정시야말로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식이며, 叙事詩를 客觀詩라 한다면, 抒情詩는 主觀詩라고 할 수 있다. 西洋에 있어서도 19世紀 浪漫主義 대표적 문학양식은 小說이 아니라, 抒情詩였다 그래서 20世紀 新古典主義 詩人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등 여러 시인들은 19世紀의인 개인 정서의 放出을 반대하고 詩에 있어서는 知性的의 관여를 主張하였다.

詩는 情緒로부터의 解放이 아니라, 情緒에의 逃避이며, 個性의 표현이 아니라, 個性에서의 逃避다. (TS Eliot, The Sacred Wood 'Methun p. 53)

엘리엇의 이 말은 비개성적인 詩를 지향하는 이들의 格言이라 하겠다.

그러나, 陶山十二曲은 西歐의인 視覺的의 詩로서의 보는 詩인 抒情詩가 아니라, 聽覺的의 詩로서의 노래하는 詩인 抒情詩요, 主觀詩였다.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과거의 詩는 노래하는 詩요, 現代詩는 보는 詩였다.

陶山十二曲은 時調다. 時調는 반드시 音樂을 隨伴한다. 즉 韓國的의 唱法이 따른다. 抒情詩(Lyric)란 元來 노래부를 수 있는 詩를 뜻한다. Lyric이란 이 말은 고대 그리스<sup>1)</sup>의 七絃 縱琴인 라이어(Lyre)에 맞추어 노래부 데서 나온 말이다. Lyric이란말엔 抒情的의이란 뜻도 있지만 音樂的의이란 뜻도 있다. 抒情의 本質의 하나는 음악이다. 에드가엘렌·포우는 詩는

「美의 韻律的의 創造」(The rhythmical creation of beauty)

라고 定義하였으니, 포우가 얼마나 韻律 즉 音樂을 重視했는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詩는 音樂的의言語로 表現된 抒情이다. 詩가 음악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의 抒情詩가 음악에 의하여 작곡되어 불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退溪의 陶山十二曲 跋文에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詩를 짓되 노래부르게 하기 위하여 李龜六歌를 본받아 國音으로 陶山十二曲을 지었으며, 아이들에게 노래블리고 鑑賞하였다.

當時의 漢詩는 읊을 수 있지만 노래부를 수 없으므로 時調詩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의 詩經이 노래부르는 樂詩였으나, 그 뒤 점차 口誦詩(徒詩)가 창작되었으나 退溪 當時에도 많은 漢詩가 창작되었으나, 이것은 口誦詩(徒詩)였지 노래부르는 樂詩는 아니 었

다. 그러나, 여기 云謂하는 陶山十二曲은 노래부들수 있는 樂詩였다. 즉 이 노래는 時調란 抒情詩며 主觀詩요, 音樂을 隨伴한 樂詩였다는 것은 退溪自身の 跋文에도 明示되어 있다. 요즘 漢詩는 「可詠而不可歌也」라 하고, 국어로 陶山十二曲을 지어 「欲使兒輩로 朝夕으로 習而歌之」케 하고, 또 「自歌而自舞蹈之」케 하였으니 틀림없는 樂詩였다. 그리고, 우리의 固有定型詩인 時調는 徒詩가 아니고, 歌唱하는 樂詩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陶山十二曲은 音樂을 수반한 樂詩요, 同時에 主觀詩였다.

### (9) 詩觀과 詩情

陶山十二曲跋에서 모라리스 詩人답게 溫柔敦厚하고 純靜의 詩觀을 가졌다. 寸毫의 浮華도 淫哇도 男女相悅의 辭는 보지 않는다. 枯談하면서도 華彩를 배격하고, 淸敞한 詩觀 속에서 선 退溪인지라, 확고한 理氣哲學觀이 확립된 道學觀 속에서 抒情을 昇化시켰기에 어디까지나 道學者的인 溫華하고도 端雅한 詩情이 서려 있다.

확고부동한 哲學觀아래 詩를 창작하였으므로 언제나 敦厚하고도 溫和하며, 精粹·優雅·簡談한 깊은 哲理가 스며있고, 深長·含蓄성이 강한 詩情이 어렸다. 確然한 「理氣互發·四七對立」의 學을 根幹으로 한 道學觀과 「溫華·優雅·高尚」한 人格속에서 퍼낸 抒情의 꽃이므로, 言外에 人生正道 聖賢의 道가 隱然中에 번져 나온다. 그의 道學君子的 哲學觀에 이루어진 陶山十二曲이기에 所謂 淫哇 褻戲의 詩의 世界를 배척하고, 溫敦 高尚한 詩世界로 치달게 된 것은 當然한 所致라고 생각한다.

沙村 張絳世가 陶山十二曲을 評하기를

「意思가 眞實하고, 音調가 淸絶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면, 그 善端을 일으키고 그 弊穢를 씻을 수 있으니 진실로 詩 三百의 遺旨라」(沙村 張先生文集 乾卷 卷六二 22장) 고 극찬하였으며, 또 이어

「달밝은 고요한 밤에 沈吟永言하며, 景仰의 회포를 부치게 되니 一番吟韻이 더욱 意味 深長함을 깨닫고, 스스로 手舞足蹈하지 않을 수 없다」(同上)

라고 말하였다. 意眞思實하고, 音調淸絶하여 詩體의 遺旨을 이었다고 칭찬하고, 意味深長한 含蓄性을 읽고는 手舞足蹈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으니 退溪 詩情의 高尚美를 沙村은 마음 속에 撞得하였던 모양이다. 枯談하여 처음엔 無味한 것 같으나, 읽으면 읽을 수록 좋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詩味가 陶山十二曲을 깨닫고 있다.

### (10) 陶山十二曲의 模倣作品

沙村 張絳世는 退溪의 「陶山十二曲」을 모방하여 忠君憂國을 노래한 「江湖戀君歌」十二曲을 지어 후세에 빛냈다.



張經世 (1547~1615)는, 退溪보다 45歲 年下로 子는 兼善, 号는 沙村, 本貫은 興德, 郡守 健의 아들로 태어나 44歲 때, 宣祖 22年(A. D. 1589) 增廣 文科에 丙科로 登科, 50歲 때, 宣祖 29年(A. D. 1596) 著作을 거쳐 59歲 때, 宣祖 38年(A. D. 1605) 金溝縣令에 在任中 失政의 책임을 지고 罷職當하고 江湖에 돌아와 餘生을 보내면서 학문 도야에 힘쓰고 江湖戀君歌를 지어 抒情을 昇化시켰다. 歿后 南原의 德溪書院에 祭享된 文臣이었다. 享年 69, 沙村이 中年 40代에 登科하고 59歲때, 겨우 金溝縣令에 除授 되었다가 未久에 失政으로 罷職當하고 故里에 돌아가 유명한 「江湖戀君歌」十二曲을 지었다. 이 노래 十二曲이 沙村集에 傳하는데 그 작품을 모두 여기에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江湖戀君歌〉 (前六曲)

- (1) 瑤空에 돌봄거늘 一張琴을 빗기안고  
欄干을 디허안아 古陽春을 툇은말이  
엇더라 님향훈 시름이 曲調마다 녹노니
- (2) 紅鹿의 꿈씨연디 二十年이 어제로다  
綠楊芳草에 절로노힌 무리되어  
時時히 고개를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
- (3) 시저리 하슈상흔니 木을 둘 띄엿다  
喬木도 베긔고 世臣도 그자시되  
議論이 여괴저괴흔니 그를 몰나흔노라
- (4) 엇그제 꿈가온대 廣寒樓의 올라가이  
님이 날 보시고 그장 반겨 말흔시메  
머근 묵음 다 속노라흔이 날새는줄 모르러라
- (5) 漢文이 有道흔이 賈太傅를 내 운노라  
當時 事勢야 그리 偶然홀가  
엇더타 긴 혼숨긔티 痛哭조차 ㅎ 던고
- (6) 宋玉이 그울홀 만나 무스이리 슬프던고  
寒霜白露는 ㅎ는히 괴운이라  
이내의 녹몬 저 근심은 봄 그울 업서라

(江湖恋君歌) (後六曲)

- (1) 尼丘에 日月이 불가 陋巷에 비취었다  
浴沂春風에 氣象이 었던고  
千載에 謂然嘆息 ㅎ시던 소리 귀에 ㅎㅎㅎ여라
- (2) 窓前에 풀이 푸르고 池上에 고기 쉰다  
一般生意를 아늑이 키 누런고  
어즈버 光風鬻月 坐上春風이 이제로 온듯 ㅎㅎ라
- (3) 孔孟의 嫡統이 느껴 晦庵기 다득라이  
精微學文은 窮理正心 誦닐넌의  
어더타 江西議論은 그를 支離타 ㅎ던고
- (4) 江西의 議論이 높고 茶飯은 蒲塞로다  
菽粟의 맛술 아던동 모르던동  
수리에 ㅎ바리 업소이 갈길 물나ㅎ노라
- (5) 丈夫의 몸이 되어 飢寒을 돌리것가  
一山風月에 즐거움이 ㅎ이업다  
늑마다 浮雲富貴을 쓸울 줄이 이시라
- (6) 得君行道는 君子的 뜻디로되  
時節 곳 어긋면 考槃을 즐겨ㅎ니  
疎談한 松風山月이샤 나쨌인가 ㅎ노라

앞에 든 沙村의 「江湖恋君歌」十二曲은 退溪의 陶山十二曲의 系統을 밟아 창작한 時調十二首의 眞影이다. 沙村의 跋文에 「謹效其體 足成前後六曲」이라 하였으니 분명히 退溪의 陶山六曲을 모방하였던 것이다.

이 노래는 沙村 經世가 金溝縣令에서 罷職當하고 故里에 돌아와 山水間에 寓居하면서 退溪의 陶山十二曲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어 沙村 65歲 때, (光海君 四年 : A. D. 1612) 봄 二月 上澣에 지었던 것이다. 江湖恋君歌의 末尾에

「萬曆 壬子 春二月 上澣 後學 沙村 張經世 謹書」 (沙村集)

라 한 것을 보면, 分明히 光海君 四年 (A. D. 1612)에 이룩된 것이니, 때는 沙村 歿前五年이요, 退溪 歿後 43年 뒤의 일이다.

沙村이 江湖戀君歌를 지은 由來와 그 內容에 대하여는 그가 쓴 江湖戀君歌跋에 소상 하게 설명되어 있다.

「余少時 因友人 李平叔 得視退溪先生陶山六曲歌 意思眞實 音調清純 使人聽之 足以興起 起其書端 蕩滌其邪穢 眞三百篇 之遺旨也 傳寫一本 藏諸篋笥 時使童稚 歌而詠之 大有所 益 不幸見失於兵火之中 今已十年 謹能得 記數三曲 每於靜夜月明 沈吟之永言之 以寓景 仰之懷頃者 適到月波軒 偶得印本 及前謂 陶山之六曲也 一番吟諷 益覺意味深長 自不知手 舞而足 蹈也 謹效其體 足成前後六曲 一以寄愛君憂國之誠 一以發聖賢學問之正 未及自言 其志 極知僭踰無所逃罪 然使童家小子 時時高詠 以發共歸趣 則猶勝於吟風詠月 流蕩忘返 者也 嗚呼 娛母之効西施妍蚩絕 而其中心愛慕 則不 萬萬也 願言諸君子 恕其狂僭 不 以爲罪 則千萬幸甚」 (沙村集 乾卷 卷之二 22張) (江湖戀君歌)

이 跋文을 通해보면, 沙村 張經世가 少時에 벌써 친구인 李平叔으로부터 退溪의 陶山 六曲을 얻어 傳寫一本코 아이들로하여금 歌詠케 하다가 不幸히 壬辰倭亂에 잃어버린지 十年이 넘었다. 그 뒤 數三曲을 얻어 靜夜 月明時에 沈吟하고 永言다가 마침 月波軒에서 偶然히 陶山六曲印本을 얻어 삼가이 그 前後六曲體를 본 받아 이 「江湖戀君歌」十二曲을 지었던 것이다.

沙村의 「江湖戀君歌」의 前六曲은 愛君憂國의 誠을 붙이고, 後六曲은 聖賢學問의 正을 表現하고 맨 끝에 그의 遇物抒情을 썼다.

前六曲의 主題를 살펴보면,

- (1) 엔 伽耶琴 曲調마다 어린 戀君心,
- (2) 엔 草野에 묻혀도 그리는 戀君心,
- (3) 엔 世事를 걱정하는 憂國心,
- (4) 엔 夢中에 謁上코 萬端不盡하는 喜悅心,
- (5) 엔 賈太傅처럼 主上을 아끼는 忠君心,
- (6) 엔 主上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戀君心,

後六曲의 主題는

- (1) 엔 大聖 孔夫子의 드높은 仁道,
- (2) 엔 光風霽月과 같은 濂洛의 道學,
- (3) 엔 孔孟의 嫡統인 朱夫子의 窮理正心,
- (4) 엔 높고 깊은 맛을 모르는 道學의 眞粹,
- (5) 엔 大丈夫의 一山風月の 悅樂,
- (6) 엔 松風山月 속에 修道하는 君子像,

이렇게 主題를 살펴보니는 前六曲엔 愛君憂國의 至誠이 드러났고, 後六曲엔 聖賢 學問의 正道가 스케치되었고, 맨 끝 二首엔 大自然속에서 修道하는 즐거움이 宛然하다.

前六曲에서 「엇디타 님향흔 시름이 曲調마다 나느니」「時時히 고개를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님이 날 보시고 口장 반겨 말하시네」 등에 나오는 「님」은 外面上으로 보면, 單純한 愛人같으나, 内容上으로 볼 땐, 임금을 象徵하고 있다. 單純히 어떤 女性이 어떤 男性을 어떤 男性이 어떤 女性을 그리워하는 「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님」을 빌어 主上을 象徵하였다. 自古로 우리의 古時調에 나타나는 「님」은 거의 임금을 象徵하였다. 道學君子나 兩班官僚의 時調에 나타나는 「님」은 例外없이 임금을 象徵하였다.

最近世 韓龜雲이 「님의 沈默」이란 詩集 序文에서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로운 것은 다 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이라면 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의 님이 봄이라면, 마저니의 님은 이탈이다」 라고 하였으니 「님」은 사랑하는 님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祖國乃至는 民族을 象徵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時調에 나타나는 님과는 趣向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古時調에 나타나는 님의 例를 들어 보면,

- 님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설줄이 이시라 (鄭夢周의 時調)
- 님向흔 一片丹心잇썸 썸줄이 이시라. (朴 彭年의 時調)
- 千萬里 머나먼 길린 고은님 여회음고 (王邦衍의 時調)
- 數万里스니미어시니 (數万里主) (龍歌 第三十一章)
- 뉘라서 내 行色 그려내야 님계신의 드릴고 (鳳林大君의 時調)
- 님이 혜오시매 나는 전혀 밋엇더니 (宋時烈의 時調)
- 님계신 九重宮闕에 우러준들 엇더리 (李恒福의 時調)
- 고은님 계신덕가 비취어나 보리라 (鄭澈의 時調)
- 다만당 님그린 타사로 시름제워 호노라 (鄭澈의 時調)
- 桃李야 꽃이온양 마라 님의 뜻을 알페라 (宋 純의 時調)
- 님그린 막음이 가디록 새로왜라 (辛啓榮의 時調)
- 님向흔 丹心이 즐드라 니줄소나 (소 上)
- 이제 님이 보면 날인줄 알으실까 (姜栢年의 時調)
- 을 님 뜻오면 즐조차 아니온다
- 쥬조차 가져간 님을 그려 무썸 호리요 (趙明履의 時調)
- 우리도 님그린 눈물은 언의 덕에 그칠고 (金默壽의 時調)
- 님과 나와 다 늙어시니 또 언직 다시 점어불고 (朴道淳의 時調)

이렇게 過去의 名人 達士의 時調에 나타나는 「님」은 外面上으로는 愛인이 될 것이나, 內

面上으로는 「임금」을 象徵하였다.

國文學上的 最高峰이라 할 수 있는 鄭松江같은 이는 그의 歌詞, 時調 속에 「님」을 많이 썼다. 이 「님」은 말할 것도 없이 단순한 愛인이 아니라, 君主를 메타포아하였다. 그리고 또 松江은 歌詞 題目이나 漢詩 가운데 「美人」을 戲用하였는데 이 美人은 단순한 花容月態의 佳人이 아니라, 언제나 君主를 寓意하였다. 우리 말로는 「님」 漢詩로는 「美人」이라 表現하였지마는 이것은 다 「君主(임금)」를 메타포어하였다. 이들처럼 沙村도 그의 時調속에서 「君主(임금)」를 「님」이라 象徵 表現하였다.

沙村의 前六曲엔 恋君憂國의 至情이 흘러 넘치는 叙情의 蜜花요, 後六曲은 聖賢學文의 光明正大한 眞影을 나타낸 抒情의 蜜花다.

退溪의 陶山六曲을 效則하여 創作한 沙村의 「江湖恋君歌」六曲은 陶山六曲의 철저한 祖述이며, 退溪의 六曲에 比하면, 詩想·表現技巧·抒情의 美感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다 해도 그 나름대로 時調의 生命이 말 밖에 움추리고 앉았다.

果然 題目 그대로 棄官하고 大自然속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心境은 傳統的 專制 君主 社會의 主從關係에서 當然하다고 보겠으나, 沙村의 경우는 松江처럼 尤甚하였다. 憂國 恋主의 心源가 字字句句에 어렸다. 表題 그대로 「江湖恋君歌」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退溪가 春秋 65歲에 陶山六曲을 創作하여 그의 言志言學을 言外에 漏렸으나, 沙村 또한 그 體를 받아 65歲 때에 이 「江湖恋君歌」六曲을 지어내어 愛君憂國의 誠과 聖賢學文의 正을 나타내었으니 退溪의 陶山六曲에 얼마나 빠져리게 느꼈는가 하는 것을 알고도 님음이 있다.

沙村 張經世 뒤에도 安瑞羽가 櫛院十二曲을 지어 그의 抒情을 吐露하였다. 櫛院十二曲엔 跋文 등이 없어 陶山六曲을 效則했는지는 모르지마는 連時調의 首數, 表現形式, 表現技巧 表現內容을 보면, 陶山六曲의 效則일 것이다.

- (1) 님뎌을 저버야 님의 뎌을 심각호니  
나슬호면 님슬코 님도호면 나도호니  
모로미 己所不念을 勿施於人 호리라
- (2) 文章을 호자호니 人生識字憂患始오  
孔孟을 뵈오려호니 道若登天下不可及이로다  
이내뎌 쓸디업스니 聖化農圃되오리라
- (3) 青山은 무스일노 無知 호 날긔트며,  
綠水는 엇지호야 無知한 날긔트노,  
無知타 웃지마라 梁山藥水 홀가 호노라.

- (4) 紅塵에 絶交하고 白雲으로 為友하야  
 綠水靑山에 시름업시 늘거가니  
 이등의 無限至柔을 현스할가 두려웨라.
- (5) 耕田하야 朝夕하고 釣水하야 飯餐하며,  
 長腰의 荷鎌하고 深山의 採樵하니  
 내生涯 이뿐이라 뉘라셔 다시 알리.
- (6) 내 生涯 澹泊하니 그 뉘라셔 큰즉오리  
 入吾室者清風이오 對吾飲者明月이라  
 이내몸 閑暇하니 主人될가 하노라.
- (7) 人間의 벗잇단말가 나는알기 슬피여라  
 物外에 벗업단말가 나는알기 즐거워라  
 슬거나 즐겁거나 내분인가 하노라
- (8) 巖山의 白雪起하니 나는보민 즐거웨라  
 江中白鷗飛하니 나는 보민 반가웨라  
 즐기며 반가와하거니 내벗인가 하노라
- (9) 有情코 無心 흘스 아마도 風塵朋友  
 無心코 有情 흘스 아마도 江湖鷗鷺  
 이제야 昨非今是非을 언드문가 하노라
- (10) 陶彭沢 棄官去할제와 太傅는 骸婦할제  
 浩然行色을 뉘아니 부러하리  
 알고도 不知止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 (11) 내막음 定하後니 為貧而仕 거춧말이  
 내몸을 自專의 못하니 為親而屈이 올흔말이  
 이제나 養極專城하니 도라갈가 하노라

(12) 人間の 風兩多 ㅎ니 ㅁ스일 ㅁㅁ는노  
 物外에 烟霞足 ㅎ니 ㅁ스일 아니가리  
 이제는 가려定 ㅎ니 逸興계워 ㅎ노라

(13) 먹거든 머지마라 멀거든 먹지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ㅎ련마는  
 입조차 벌어리되니 말못하여 ㅎ노라.

이 楡院十二曲은 安瑞羽의 創作으로 아마 陶山十二曲을 效則하여 이룩된 것이리라.

安瑞羽는 顯宗五年(A. D. 1664)에 出生하여 英祖 十一年(A. D. 1735)에 逝去하니 享年七十二. 字는 鳳孝요, 号는 兩棄翁, 本貫은 広州며, 広城君 鼎福의 祖父다. 일찍이 文名이 宇內에 떨쳤으며, 肅宗十七年(A. D. 1691) 28歲 때, 生員이 되고, 三年 뒤 三十一歲(A. D. 1694) 때, 別試文科에 丙科로 登第하였으나, 앞서 聖廟從祀의 의논에 参与하였기에 承文院에 뽑히지 못하였다. 泰安郡守와 蔚山府使를 지냈으나, 뜻하는 바 있어 全羅道 茂朱에 살면서 長安엔 발을 끊고, 閑暇한 田園生活 속에서 生을 누렸다. 僉知中樞府事의 命이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던 山林处士였다.

楡院十二曲은 安瑞羽의 文集인 兩棄齋散稿에 실려 있는데, 총 十三首인데, 그中 첫首는 序章이다. 이 노래를 通해 보면, 自然 愉悅樂을 엿 볼 수 있다.

紅塵에 발을 끊고 白雲을 벗삼아 綠水靑山 속 無限至樂을 즐겨워하는 모습이 바로 安兩棄齋였다. 그 어려운 文科에 及第하여 宦路의 길이 트이긴 하였으나, 느끼는 바 있어 棄官 陶彭沢을 탐아 風月主人이 되어 物外烟霞속 人間 밖 人間을 즐기는 兩棄齋, 그는 마음에 분명히 定하였다. 紅塵不仕를 분명히 定하고, 自然속에서 樂山樂水하면서 田園의 無限至樂을 누리기를 判然히 決意하고 田園의 樂을 滿喫하였다.

「靑山은 무스일노 無知 ㅎ 날긋트며,

綠水는 엿지하야 無心 ㅎ 날긋트노

無知타 웃지마라 樂山樂水 ㅎ가 ㅎ노라」

라고 읊었다 樂山樂水의 樂을 表現하였고,

「紅塵에 絶交 ㅎ고 白雲으로 為友 ㅎ야

綠水靑山에 시름업시 늘거가니

이 등의 無限至樂을 현스 ㅎ가 두려웨라」

라고 읊었으니 安兩棄齋의 心境이 그대로 表現되었고,

「有情코 無心 ㅎ스 아마도 風塵朋友

無心코 有情 ㅎ스 아마도 江湖鷺鷥

이게야 昨非今是을 깬드르가 ㅎ노라」

지난세 一時的 仕宦이 그르고, 오늘의 江湖至樂 속 田園生活이 울음을 깨달았다. 世上의 벗은 有情하지마는 無心하고, 江湖의 鷗鷺는 無心하지마는 有情하였다고 吐露한 兩棄齋의 中心을 揣摩할 수 있다. 宦路의 風波險峻하였기에 仕宦을 그만 두고, 溟明처럼 沙村처럼 田園에 들어가 自然속 人生을 살아갔다.

「耕田하여 朝夕하고, 釣水하여 飯餐하며,  
長腰에 荷鎌하고 深山에 採樵하니,  
내 生涯 이 뿐이라 뒤라서 다시 알리」

라고 읊은 것은 田園生活의 至樂이 如實히 드러나고 있다. 純朴하고 閑靜한 田園 모습 속에 兩棄齋는 兀然히 섰다.

그런데, 退溪는 일찌기 宦路에 발을 끊고 물러가 山林에 隱居하고, 修己立學 求聖코자 하는 余暇에 情緒生活을 美化하고 調和하기 爲하여 陶山十二曲이란 連時調를 지어 言志 言學의 抒情을 昇化시키면서 修道立學하였다. 그 뒤 얼마 안되어 沙村 張經世도 退溪와 같이 仕宦을 그만 두고 故里에 돌아와 「陶山六曲」을 읽고 느끼는 바 있어 「江湖恋君歌」를 지어 忠君憂國과 聖賢學問의 高古性을 읊으면서 自然 속 至樂을 滿喫하더니 또 그 뒤 兩棄齋 安瑞羽가 卓然히 出하여 仕宦을 固辭하고 田園에 들어가 物外烟霞 속에 閑居하면서 「楡院十二曲」을 지어 부르곤 自然 속 閑靜人生을 보냈다. 風塵을 絶交하고 白雲을 벗삼는 철저한 風月主人이 되었다. 이 「楡院十二曲」도 退溪의 「陶山十二曲」의 遺音이 아니고 무엇이랴.

退溪는 溫恭敦厚한 人格으로 野하지도 卑하지도 않는 純靜어린 陶山十二曲 속에서 主觀的 客觀의 自然美를 발견하였으나, 沙村 亦是 陶山十二曲을 본받아 江湖恋君歌 속에서 客觀的이면서, 主觀의 自然美를 謳歌하였고, 兩棄齋도 楡院十二曲 속에서 철저한 客觀的이면서 主觀의 自然美를 謳歌하였다.

그러므로, 「陶山十二曲」은 「江湖恋君歌」와 「楡院十二曲」의 祖宗이 되었으니 退溪六曲의 後世 影響力을 알 수 있다.

### (11) 小結言

龔岩・倪仰亭 兩翁은 江湖歌道の 先唱者요, 樹立者다. 이 自然美 발견의 歌道는 退溪나 粟谷에게도 많은 영향이 끼쳐졌고, 國文學의 最高峰이라 할 수 있는 松江 鄭澈의 詩歌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다. 여기에 말하는 陶山十二曲은 李瞻六歌를 效倣하여 言志하였다. 天資 溫恭 誠實한 東方 朱夫子의 칭예가 자자한 道學君子인지라, 그가 지은 陶山十二曲 또한 余地의 俗流와는 그 趣向을 달리 하고 있다. 溫恭柔厚의 實이 맺힌 노래로서 野하지도 않고, 卑하지도 않고, 病없이 앓는 것도 아니요, 아름답지 病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



다고 해서 悲而憤하는 것도 아니요, 哀而哭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人間 純靜과 深長性이 美化된 抒情의 主觀性과 音樂性이 躍動쳐 흐르고, 穩健하고 따사한 主觀의 自然 속 抒情이 心琴을 울린다. 優雅하고 深思의 實感이 흘러넘친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은근한 세계로 치달게 한다. 退溪의 人格을 온통 들어낸 듯 하며, 溫恭端雅한 古道學者의 崇高한 人格에 接한 듯한 느낌이 나는 노래가 이 陶山十二曲이다. 野하지도 淫하지도 않은 純靜의 自然文學性이 함박 담겨 있다. 그 自然도 客觀의 自然에서 主觀의 自然으로 昇華시키고자 하였다. 더구나 退溪는 學道가 무르익어 갈 무렵인 晩年 六十五歲 때, 이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노래 부르게 하고, 그를 들으면서 情緒 生活을 美化시켰다. 우리 東方 歌曲이 語多淫哇하고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므로 溫敦柔厚하고도 高尚한 言志를 伝하기 爲하여 이 陶山十二曲을 지었던 것이다. 더구나, 漢詩는 읊을 수 있으나, 노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不得不 우리의 時調形式을 빌어 抒情을 吐露하였던 것이다. 此曲이 새겨져 있는 退溪執筆 板木이 현재 陶山書院에 伝하고 있음이 多幸한 일이며, 그 書風 또한 端勁하고 右軍體를 받아 이룩한 品格이 一家를 이루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知友 金河西가 退溪에게 「李杜文章 玉趙筆」이란 찬사를 보낸 것도 헛된 말이 아닌가 한다.

이 陶山六曲은 그 뒤 한 系譜를 이룩한 名曲이다. 沙村 張經世의 「江湖恋君歌」나 兩棄齋 安瑞羽의 「楡院十二曲」 伴鷗翁 申輝의 「伴鷗翁歌」 등은 이 陶山六曲을 效則한 抒情의 逸品이라 하겠다.

그 옛날 退溪는 값진가는 그의 至高至純한 學問과 더불어 이 時調는 長生不滅의 生命體 그것이다. 溫敦敦厚하고 純靜端雅하며, 意思眞實하고 音調淸絶하며, 意味深長한 詩觀 詩情을 안고 汀靑에 길이 빛나고 있다. 우리의 國文學史上에 있어서 栗谷의 高山九曲歌와 함께 우뚝 솟은 連時調界의 高峰이 陶山十二曲이다. 此曲은 이 方面의 一角을 이룬 古道學者 時調의 逸品이요, 代表作이라 하겠다.

## 5. 結 言

退溪는 東方의 儒宗으로 推崇되어 그의 學說과 學風이 朝鮮朝儒學史上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을 뿐 아니라, 멀리 바다 건너 日本學界에까지 크게 崇仰되었던 東方大賢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退溪는 宇宙나 人心의 本體를 理氣二元으로 생각하되, 所謂 「理氣互發說과 四端은 理發氣隨之요, 七情은 氣發理乘之」란 것을 主唱한 理學大家며, 朱子學을 계승하되, 朱子學의 未盡處를 窮盡闡明하고, 한층 발전시켜 體系化하고 그 理學을 大成한 東方 朱夫子 其

人이니 朱子以後 其學의 唯一人이었다.

日本 朱子學의 巨擘인 山崎闇齋는 가장 많이 退溪를 私淑하고, 그의 朱子書節要와 退溪集에 대하여 말하기를,

「朱子書節要是 退溪의 平生 精力이 여기에 다하였으며, 退溪文集四十九卷을 내가 閱讀해 보니 참으로 朝鮮一人이라」(文會筆錄 卷二十)

고 극찬하였으며, 그의 門人 黑岩慈雲은 특히 朱子書節要에다 致誠하여 讎校訓點을 더하고 또 跋文을 붙이되,

「朱子의 文集은 集中의 알맹이지만 退溪의 節要編은 또한 알맹이 가운데도 알맹이다.

아! 退溪의 用心이 動精하여 後學들에게 도움이 많았다. 내가 朱子書節要에 뜻 두어 읽고 校正하고 訓點을 加하여 便覽케 하였다」

라는 말을 들어보아도 退溪學이 闇齋學派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金農岩같은 이도,

「退溪의 論學文字가 東方에도 없을 뿐 아니라, 中國에도 別로 많지 않으니 眞西山같은 이는 朱子以後의 大儒로 著述이 많았지만은 論學文字는 別로 많지않고 한 들에 불과하니 退溪의 精功評懸만 같지 않았으므로 다른 것은 不問可知다」(農岩集 卷三十二 雜識)라고 하였으니 深遠 學立에 있어는 卓然 特立하였던 것이다. 또한 栗谷이 退溪와 靜庵을 비교하되,

「先生은 儒宗으로 才調器局은 或 靜庵에게 미치지 못할지나, 義理를 深究하되, 精微를 다함에 이르러선 靜庵이 미치지 못하는 바라」(退溪全書 四 卷一 言行錄 遺事 李珥撰 p. 22)라고 論評하고, 나아가,

「平生을 義理學問에 沈潛하고, 言論風旨가 뛰어난 점은 비록 古來 名儒라도 그 보다 나을 수 없다」

고 극찬한 것도 當然한 말이 아니겠는가 崔巍清涼이 退溪를 낳아 退溪를 길러내더니 그의 學德은 清涼山上千秋月과 더불어 萬古에 그 빛 滅하지 않으리라.

畿湖의 大儒 宋同春은 「夢侍退溪」란 言志에서

平生欽仰退陶翁 沒世精神尚感通

此夜夢中承誨語 覺來山月滿窓櫺 (東詩精選 卷上 p. 32)

가 부르짖고 退溪를 음모하였다.

朝鮮朝 文章 四大家의 한 사람인 李沢堂은 退溪의 生平과 思想에 대하여 말하기를,

「明宣之際 豪傑繼起 復振己卯之緒 退溪 為之冠 明懲往轍 一味謙退 當時群小流俗固有不悅 而指摘者矣 退溪深戒朋徒 專意退修 其學專以明道術辟異端 著述編輯為務 故世議無所加 而儒風丕變 國家有賴矣 (沢堂別集 卷十五 雜著 示兒代筆 6張)

라 하였으니 退溪學의 偉大性을 窺知할 수 있다. 退溪의 學德이 世上을 울림에 儒風이 크게 勃興하여 國家의 발전이 期待되었다. 淸涼山 精氣만이 여기 영글어 退溪의 生命이 어린 陶山의 옛터, 여기 그 山川과 더불어 兀出한 退溪의 學도 學이거니와 刻苦勉勵한 德行 또한 길이 빛났다.

退溪는 理學의 大賢으로써 世人의 崇仰을 받았으나, 因文入道한 大哲人인지라, 人間抒情을 吐露한 詩文學 또한 他的 追從을 許하지 않는 大詩人이요, 大文章家로 一家를 이룩한 芸苑의 巨擘기도 하였다.

그의 文集을 閲讀해 보면, 하고 많은 詩와 文章이 退溪의 胸裡를 깨움고 있다. 因文入道한 退溪인지라, 이 方面에 宿工이 있어 일찍부터 能聲을 博하여 宇內를 聳動하였다.

退溪는 俗儒처럼 道文一致 文藝觀에 머물지 않고, 文學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아무리 좋은 道라도 文章의 表現力 없이는 나타낼 수 없으니 그 얼마나 文章이 必要한가를 喝破하였다.

「文章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Buffon이 아니라도 退溪는 「詩는 사람이요, 사람은 詩라」고 한 詩觀을 갖고, 抒情을 昇化시켰다. 그는 確固不動한 理氣哲學觀 속에서 事物을 靜觀하는 道學君子이기에 褻慢戲狎과 淫哇를 배격하고, 溫敦·純靜의 詩觀으로 치달아 遇物에 基本情緒를 吐露하였다. 溫柔軟厚한 詩教에서 退溪의 言志가 살피 갔다. 그는 詩를 愛好하였다.

「詩不誤人人自誤하니 興來情適已難禁이라」 부르짖으며, 詩自體의 純靜無垢性을 表現하였다. 여기 詩는 詩經이기도 하다.

그는 中年以前엔 文學에 力功타가 中年以後엔 朱子學에 心醉하여 理學을 大成한 道學君子였으나, 詩文을 決코 輕視하지 않았다. 特히 陶淵明·杜甫·蘇東坡·朱晦庵의 詩에 影響을 많이 받았다. 初年엔 陶·杜를 崇尚하고, 中年엔 東坡를 崇尚하였으나, 晩年엔 朱晦庵의 詩文과 學에 心醉하였다. 그의 詩情은 高遠한 學과 高邁한 人格에서 번져나온 것이기에 그런지 華彩를 멀리하고, 淸澁·枯淡·純靜·勤健·典實·深思로 치달아 얼핏 보기엔 無味乾燥한 것 같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高尚한 詩味가 그의 詩를 애워싸 남모른 余韻이 풍긴다. 그는 襟懷가 飄洒하고 韻度가 淸越하며 天性이 自然을 좋아하고, 田園을 즐겼으므로 그의 文學은 自然의 美感이 強하게 作用되었다. 그의 自然은 客觀的 自然描寫가 아니라 오히려 主觀的 自然으로 끌어 들이려 하였다. 그의 詩的 題材는 兩班官僚들의 生活抒情이나 陶山風物의 言志가 主脈을 이루긴 하였으나, 詩想이 높고 深思의 純靜 高尚美에 退溪가 서 있었다. 人生의 底辺을 題材로 하지 않고, 貴族의 志向한 것은 그의 人生觀 哲學觀과 環境에서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溫華한 人格의 所有者이기에 詩 또한 優雅高尚 端勁하여 그 詩 속에서 退溪가 生動하

였다. 그의 人格이 詩로 읊었다. 太陽의 불이 해바라기에 담았는 것처럼 그의 詩는 近體 絕律이 主脈을 이루었으나, 古風도 잘 하였다. 退溪 自身이 난 樂府와 詞를 解하지 못한다고 述懷하는 것처럼 詞樂은 손대지 않았고, 辭賦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直叙보다 隱喻를 많이 쓰고, 哲理詩로 지향하였다. 더우기 言外有意的 深長性을 통하여 抒情을 묻어 뜬었다. 그는 또 許多한 花草 植物中에도 梅竹을 좋아하고, 그를 많이 읊었으나, 그中에도 梅花를 유독 사랑하여 百餘首의 梅花詩를 남겼고, 梅花詩中에 그의 代表作이 들어 있는 것도 異彩롭다. 寒士의 梅花의 美感, 竹外疎花兩三開의 高潔性이 退溪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事物을 靜觀하고 學을 하는 태도가 掃納의 工夫보다 演繹의 工夫로 나아갔기에 모든 面에 演역적 方法을 取하여 人間 抒情을 吐露하였다.

退溪의 精詳慎密한 性格은 그의 학문에서 더욱 발휘되어 形而上學的의 哲學을 講論하면서도 形而下學的의 訓詁考證學을 重視하고 一字一句라도 泛然히 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의 詩章은 그의 筆法의 端勁과 한가지 一絕 一句 一字라도 選鍊精思의 苦를 加하되, 가벼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刻苦勉勵하는 詩作態度는 詩聖 杜甫와 닮았으나, 晩年詩의 溫敦한 哲學性은 朱子와 닮았다.

그의 學友 金河西가 退溪에게 贈한 詩가운데,

「李杜文章王趙筆」(退溪全書 三年譜 卷一 p. 577)

이라고 극찬하였으나, 오히려 「陶杜文章右軍筆」이라 代稱하고 싶다. 退溪는 李白의 詩와 趙松雪의 書를 익히지 않았으니 어찌 「李杜文章王趙筆」이라 할 수 있으랴.

그의 詩와 文이 다能하긴 하였으나, 文이 더 能한 것 같다. 그의 詩文이 다 溫厚円滿한 情誼와 論理整然한 說理의 味가 흘러넘쳤다. 특히 陶山十二曲이나 曹南冥·趙月川에게 준 書信은 이 方面의 代表作이요, 論理文으로 戊辰六條疏나 進聖學十圖 등이 그의 代表作이라 할 수 있다.

그의 文章은 「織布成匹」의 境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그의 得意인 書牘에 이르러선 諄諄篤篤하고 情誼가 흘러넘쳤으며, 마치 朱子의 그것을 읽는듯한 느낌을 준다. 退溪는 晩年에 朱子의 詩文을 酷愛하였으므로 그의 晩年所作이 朱子와 格調를 같이하여 一手에서 내친 것 같다고 한 退溪言行錄 말이 切實하였다.

退溪는 또 우리의 時調體로서 陶山十二曲을 지어 우리의 國文學史上에 오리온座를 차지하였다

純靜 敦厚한 陶山十二曲엔 退溪의 人格이 生動하고 있다. 淫哇褻慢을 배격하고 溫柔敦厚한 詩觀에서 창작된 傑作이며, 이 系列의 祖宗이 되었다. 張經世의 江湖恋君歌나 安瑞羽의 榆院曲 伴鷓鴣의 伴鷓鴣歌 등은 다 이를 效顰한 것이었다.

此曲은 退溪 晩年 65歲 때, 3月16日에 창작하였고, 野하지도 卑하지도 않고, 病없이  
않는 것도 아니오, 純靜·敦厚·優雅·深思의 美感이 흘러넘친다. 此曲이 새겨져 있는 退  
溪親筆板本이 현재 陶山書院에 비장되어 있음이 多幸한 일이며, 그의 書風 또한 端勁하고  
右軍體를 받아 이룩한 品格이 一家를 이루었다.

그 옛날 退溪는 갔건마는 陶山千秋月과 더불어 此曲은 長生不滅의 生命體로써 汗靑에  
길이 빛나리라.

끝으로 近世의 鬼才 申紫霞의 東人論詩絶句를 들어 退溪詩情을 찬송하면서 붓을 놓는  
다.

「夢牽白鶴靑松懷 詩好丹山碧水題

摹寫江光橫匹練 空中明月近堪梯」